

우리문화

특집 I 문화분권과 지역문화진흥 대토론회

특집 II 문화예술교육의 오늘과 내일

문화진단 변화하는 문화환경 달라지는 지역문화

통권 제169호 2004. 3 · 4

전국문화원연합회

특집 I

15

문화분권과 지역문화진흥 대토론회

제1주제 : 문화분권 실현방안

제2주제 : 지역문화의 활성화 방안

제3주제 : 지역문화의 특성화 방안

제4주제 : 지역문화 진흥과 문화원의 역할
종합토론



특집 II

58

문화예술교육의 오늘과 내일

'남의 노래' 만 가르칠 것인가? · 최종민
제대로 노는 방법을 가르치자! · 홍승찬

문화진단

70

변화하는 문화환경 달라지는 지역문화

고속철시대개막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순풍인가? 역풍인가? · 이기태

행정수도이전

수도서울이 내려가면 문화격차가 해소된다. · 정갑영

주 5일제 근무

'가족' '레저' '체험' 이 지역문화 성공 키워드 · 권두현

contents

권두칼럼	이제는 문화지도자 양성할 때 · 정중현	02
문화뉴스	제14차 전국 문화원 사무국장 연수 盛了 · 편집부	06
문화뉴스	전국문화원연합회 부설 '문화동력연구소' 개소 · 편집부	07
문화논단	디지털 대동여지도 어떻게 만드나? · 이흥재	08
뒷마루	나무에 물이 오르는 봄날의 풍습 · 주강현	12
문화산책	한국의 정원 · 장영복	34
詩	그리던 시절은 떠나가 버리고... · 장윤우	41
지역문화 네트워크	대전광역시 지회장 한근수씨 등 · 편집부	42
화보	널뛰기 · 한순덕	44
향토지킴이를 찾아서	죽장 짚고 망해 신어 1,000회 국토 답사 · 박지혜	46
전통문화를 찾아서	5대째 화살통 제작 기마민족의 혼 담아 · 박지혜	49
남방문화 탐사	양코르의 일몰 · 송기동	53
사랑방	한국여인의 표상, 강정일당(姜靜一堂) · 한춘섭	66
문화자료실	회의도 경쟁력이다 · 김정동	84
신간안내	영덕자료실 등 · 편집부	88



표지
창호 (최진연 作)



권두칼럼

이제는 문화지도자 양성할 때



정중헌
(조선일보 논설위원)

요즘 웬만한 헬스클럽에는 체력관리사가 있다. 체력에 맞게 운동량을 조절해주고 균형있게 몸을 관리해 주는 것이 그들의 임무다.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병원도 특수화하는 추세다. 질병의 예방을 위해 신체관리는 물론이고 식단까지 마춤으로 짜주는 특수클리닉이 인기를 끌고있다.

신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신이다. 정신이 상처받거나 둔해지면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건강마저 해칠 우려가 있다. 요즘처럼 정치가 흔들리면 너나없이 신경이 곤두서게 마련이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만사를 순일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다. 마음의 여유는 정서의 안정에서 생긴다. 사물을 보고 아름답게 느끼는 감정, 그중에도 자연의 감흥과 예술의 감동은 우리의 정서를 풍부하고 윤택하게 해주는 정신의 비타민이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엔터테인먼트(오락)를 추구하지만 진정한 정신적 즐거움은 문화예술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문화적인 환경과 높은 경지의 예술이야말로 각종 공해에 찌들린 현대인들의 정서를 채워주는 청량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는 문화예술을 즐길만한 여유를 갖지 못했다. 6.25 전쟁이 활귀고 간 폐허 속에서는 생존이 급선무였고, 사회의 격변속에서 문화는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21세기를 맞았고, 세계는 문화가 주도하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제조업, 서비스업을 IT와 문화산업이 밀치고 나오면

국민은 서울에 살던 지역에 살던 누구나 문화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특히 현대의 대중은 문화의 감상자, 소비자이면서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회화, 도예, 조각, 사진 등 시각예술, 장구나 가야금 해보기, 연극 무용 배우기, 시와 소설 창작이나 독후감 발표 등 온갖 장르중 원하는 분야를 직접 체험하고 발표하는 문화의 생활화가 선진국에서 보편화된지 오래다. 우리도 지역이나 직장 등 커뮤니티별로 이런 예술문화 활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동호인을 모으는 문화센터도 늘고있다.

서 문화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최대 무기인 창의력은 결국 문화예술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자면 문화예술이 삶에 녹아들어야 한다.

문화가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

이제는 대중이 문화의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이기도 하다. 대중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문화활동을 쌍방향체제로 소통하는 주체로 변했다. 종래의 아날로그 방식의 문화환경이 디지털 문화환경으로 급변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인터넷이 쏟아내는 사이버세상, 멀티미디어 채널의 홍수속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다.

대중은 사이버 밖의 리얼한 세상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과학이 빚어내는 차가운 문화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영혼이 교감하는 현장을 체험하고 싶은 것이다.

미술관 박물관에 관람객이 몰리고, 공연예술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주5일 근무제로 근로시간이 줄고 여가시간이 늘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문화향수권을 누리기 힘든 각가지 장애물에 싸여있다. 무엇보다 모든 문화예술 활동이 수도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민들은 문화에 소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외치지만 지역은 여전히 경제사회뿐 아니라 특히 문화적으로 푸대접을 받고있다. 수준있는 문화행사나 공연예술은 중앙에 몰려있고, 지역의 문화활동은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국민은 서울에 살던 지역에 살던 누구나 문화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특히 현대의 대중은 문화의 감상자, 소비자이면서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회화, 도예, 조각, 사진 등 시각예술, 장구나 가야금 해보기, 연극 무용 배우기, 시와 소설 창작이나 독후감 발표 등 온갖 장르중 원하는 분야를 직접 체험하고 발표하는 문화의 생활화가 선진국에서 보편화된지 오래다. 우리도 지역이나 직장 등 커뮤니티별로 이런 예술문화 활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동호인을 모으는 문화센터도 늘고있다.

그러나 이들은 아마추어다. 이들을 체계적으로 이끌어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프로그

램을 짜고 가르치고 관리해 줄 리더가 있어야 한다. 선진국들은 문화공간이나 지역 문화센터에 문화플래너와 지도자들이 상주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문화욕구를 상담해주고 능력과 수준에 맞게 활동을 관리해 주고 있다.

동네마다 문화지도자 배치하자

우리도 지역마다 문화공간이 많이 생기고 있다. 시설도 좋고 장르별로 구색을 갖춘 곳도 적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역의 문화공간들이 유기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공간은 있는데 이를 채울 콘텐츠가 부족하거나, 무대는 좋은데 이를 다룰 스태프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국민세금으로 문화공간을 만들어 놓고도 세금을 낸 지역민들은 문화혜택을 못받는 실정이다.

필자는 그 해결책으로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는 10여년전부터 기회있을 때마다 주장해온 문화복지사 제도이고, 두번째는 우리 주변에서 문화지도자를 찾아내 지역문화를 활성화시켜 지역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채워주는 방법이다. 문화시대에 정부의 역할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가 병행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기에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란 개념은 널리 알려져있고 그를 뒷받침하는 사회복지사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는 당연히 문화복지를 정책으로 실현해야 하고 이를 추진할 제도와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지역별, 또는 문화공간 단위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문화복지사로 하여금 체계적인 서비스를 담당케 하자는 취지다.

문화복지사는 일정한 교육과 예술적 소양을 지닌 인재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대학의 인문학 전공자나 예술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고용창출 효과도 클 것이다. 이들을 지역에 투입하면 지역 문화활동이 활기를 띌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지역간 문화격차가 해소되고 삶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지역별, 또는 동네별로 문화지도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60~70년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마을 운동을 벌였을 때 마을단위로 새마을 지도자들이 나서 근대화를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제 문화의 시대를 맞아 예술문화, 생활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역마다 문화지도자를 두면 문화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생활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 예로 든 문화복지사는 정부가 양성하는 제도지만, 문화지도자는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책임자를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려면 서울과 대도시의 소위 문화권력자들을 지역으로 분산시켜 지역에 봉사토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중앙과 대도시에서 문화예술에 종사한 예술가나 문화인, 교육자와 행정가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살려 지역사회 문화활동을 활성화시킨다면 보람도 클 것이고 효과도 바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문화지도자들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한후 무엇부터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여기에 필요한 인력과 장소, 예산을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지역 출신의 기업가나 유지의 찬조를 받으면 추진력이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우선은 작은 공간에서 소규모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점차 규모를 확대해 나가다 보면 지역의 정체성이나 고유문화를 살릴 수도 있다고 본다.

필자가 아는 언론계 한 후배는 자신의 고향인 경상도 한 지역에 문화를 심는 활동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다. 중앙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나 단체를 지

역에 초청해 예술세계를 보여주고 지역민과 대화도 나누는 작은 활동인데 큰비용 안들이면서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문인 한분을 초청해 동네 공회당에서 시낭송회를 갖거나 소규모 공연을 유치해 함께 보고 따라하는 기회도 갖는데 예술가들이 기꺼이 동참해 준다는 것이다. 이야말로 지역사회 나눔의 문화, 함께하는 예술이 아닐 수 없다.

문화봉사가 많아져야 ‘업그레이드’

우리가 고루 문화를 향수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문화권력이 아니라 재능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문화봉사자가 많아져야 한다. 모든 것을 정부에 의지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획일화되는데다 지역의 특성은 무시될 우려가 있다. 우리 문화예술계가 아직은 척박하지만 가용자원을 십분활용하여 가진 것을 나누는 문화지도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들이 지역민의 문화의식을 서서히 끌어올리고 참여를 확대시켜 가다보면 지역도 살만해 지게 될 것이다. 그전후 지역마다 고유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끌면 다양한 문화예술의 꽃도 피울 수 있다.

정부가 문화복지사를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관리해주고, 지역의 덕망있고 유능한 문화지도자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한다면 문화의 혈류가 전국에 고루 흘러 삶의 질도 높아지고, 한국문화도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제14차 전국 문화원 사무국장 연수 盛了

2백여명 사무국장 참석... 문화 정보교류와 화합 · 친목의 한자리

제14차 전국문화원 사무국장 연수회가 지난 4월 7일 부터 9일까지 2박3일동안 2백여명의 사무국장과 지방문화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열려 지역 문화 행정가와 전문가로부터 지방문화 발전에 관한 방안을 듣고 성공사례를 발표하는 정보교류와 화합 ·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용태 전국문화원연합회장은 “우리 지방문화원은 해방이후 혼란과 문화부재를 겪는 상황에서 고유의 전통향풍을 지켜내는데 마지막 보루를 자처해온 유일한 지역의 민간문화운동 단체이지만 21세기 지식정보화와 정보통신이라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맞으면서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대응해 나가는데 소홀한 결과 외부로부터 비판과 폄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문화원의 중심축인 사무국장 여러분들이 노장세대와 청년세대, 남성과 여성, 도시와 지방의 화합과 단결을 촉매하는 역할을 계속하는 동시에 새롭게 바뀌는 정부의 문화정책과 문화개념에 응전하는 실력을 쌓기 위해 부단한 자기혁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축사를 한 이시우 보령시장은 “뜻깊은 사무국장 교육을 보령에서 개최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각 지역의 고유문화가 하나로 묶여져서 우리나라 문화로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민병달 충남지회장은 “이제까지 지방문화원은 사무국장 여러분의 역할에 따라 발전해



왔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방 문화원 사무국장간에 정보교류와 친목교류를 함으로써 문화원이 한층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모두 5개 강의와 사례발표로 열린 이번 연수회에서는 윤원중 문화관광부 전통지역문화과장이 ‘정부의 지역문화 진흥정책’을 발표 한데 이어 주영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가 ‘문화원 IT구축’, 한만득 충남도청 사무관이 ‘예산 · 회계 실무’, 김승환 충북대 교수가 ‘지역문화 진흥 방법론’, 홍석기 한스클럽 대표가 ‘감성과 문화, 그리고 조직역량 제고’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또 사례발표 시간에는 남기동 영동문화원 사무국장이 ‘삼도교류를 통한 만남의 행사 의의’를 발표해 전국에서 모인 사무국장들의 공감을 샀으며 송하운 강진문화원 사무국장이 ‘역동적인 사업전개로 새롭게 문화원의 위상을 정립’할 것을 주장했다. 또 임미양 창원문화원 사무국장은 한국문화학교 부설 창원박물관대학(원)의 운영 현황을 발표했다. **우**

전국문화원연합회 부설 **‘문화동력연구소’** 개소

지방분권시대 맞아해 **‘지역문화진흥의 싱크 탱크’** 기능 담당



드디어 ‘지방문화의 싱크탱크’가 탄생했다.

전국문화원연합회는 4월 20일 오전 11시 지방문화의 발전과 미래를 모색할 싱크 탱크인 ‘문화동력연구소’의 문을 활짝 열었다.

이번에 개소한 ‘문화동력연구소’는 권용태 전국문화원연합회장을 비롯 전국 지방문화원들이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한 문화정책 용역기구가 필요하다”고 줄곧 주장해 온 데 따른 결실이라 더욱 뜻깊다는 반응이다.

21세기 지역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문화원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문화원연합회의 비상설 기구로 문을 연 이 연구소는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정책개발 및 자문을 비롯해 용역사업수행,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자문, 타당성 연구·검토, 지방문화원 활성화에 대한 정책개발 등을 담당한다. 또한 문화동력연구소는 21세기 문화와 예술을 생활화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며 문화의 성장 동력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이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주된 사업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문화동력연구소는 문화봉사자 양성 및 인력뱅크화, 문화행사 모니터링요원 확보, 인구 과소지역의 지역문화재 보존운동, 문화원의 지식중개자 역할 확대와 미래사회를 위한 창의성 제고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어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문화동력연구소는 전국문화원연합회장이 학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기타 인사중에서 연구위원 약간명을 위촉하고 그 중에 1명을 연구위원이 호선해 소장을 맡게 된다. **우**

문화동력연구소 연구위원

유재용 / 한국소설가협회 운영분과 위원장
이원태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영일 / (주)MBC 전 경영이사
김영기 / 민예총 경기도 지회장
박효신 / 뉴데이 커뮤니케이션 대표
이근배 / 한국시인협회 회장
홍승찬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정원일 / 경주대 교수

디지털 대동여지도



이흥재 (한국문화정보센터 소장)

어떻게 만드나?

세상이 소용돌이치며 변하고 있다. 우선 사람들이 변했다. 일벌레(homo faber)에서 신나고 폼나게 사는 인간(homo loquens)으로 바뀌고, 금욕보다는 탐욕을 절약보다는 소비를 즐긴다. 늘 새것을 찾을 뿐만 아니라 지금당장(here and now) 만족해야 직성이 풀린다. 그동안 간직해 왔던 생각의 울타리를 뛰어넘고 바꾸는데 큰 고민이 필요 없고, 즐거움 앞에서 정의나 철학은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컴퓨터도 많이 변했다. 컴퓨터는 이 세상에 태어나(1946년) 환갑을 눈앞에 둔 기계다. 계산기로 쓰이더니 어느 순간 문자를 처리하게 되고, 이제는 인간의 두뇌처럼 정보를 귀신같이 처리해주고 있다. 그런데 컴퓨터가 기계로서 마술사노릇만 하는 것이 늘 아쉬웠다. 이 기계가 사람노릇을 하는 사람냄새가 나는 기계였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컴퓨터가 확 바뀌어 다정한 ‘이야기꾼’(story telling machine)으로 변하고 있다.

문화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문화예술은 본래 창조이건 소비이건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의 생각과 기계의 역할이 변하면서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기술이 발달되고 있다. 이를 ‘문화기술’이라고 표현한다.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 문화가 발전한다. 예를 들면 인쇄, 사진, 녹음과 같은 복제기술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고, 보는 눈을 일깨워 문화예술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색채인쇄술이나 동화상이 도입되면 그 정도는 더 커진다. 더구나 ‘정보기술’이 접목되면 복제기술 이후의 문화기술에서부터 새로운 요청이 봇물처럼 밀려오기 마련이다. 결국, 문화기술과 정보기술의 만남은 서로 만나 얹히면서 급속히 발전하게 된다.

정보 수집·축적·증식 역할이 본분인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을 보자.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롭게 변화하는 예술을 받아들여 가꾸어가는 뒷밭이 되어야 한다. 더구나 앞으로는 미래의 예술이나 기술의 실험을 펼치는 ‘창조관’으로 당연히 거듭나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예술이라는 형식을 사용하는 차원 높은 통합 ‘지식센터’로 전환되어야 한다. 결국 박물관(博物館)은 정보기술과 문화기술을 접목시키고, 창조와 지식을 아우르는 박정(博情)관(博情館)이 되어야 한다.



문화기술로 맞는 21세기 르네상스

최근에 정보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예술장작은 물론 문화자원이 대부분 디지털화 되고 있다. 그림이나 조각품에 그동안 조용히 담겨져 있던 작가의 메시지는 이제 관객들의 동작에 의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미디어 아트를 통해 전달된다. 더구나 기존에 장르별로 나누던 예술을 가로질러 연결시킴으로서 새로운 장르를 낳는 방법에 대해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하고 감탄했다.

정보기술의 백미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미한다면 문화혁명은 좀더 차원을 달리해 붙어 닥치게 된다. 이 변화의 물결은 당장 문화공간에서 나타난다. 정보 수집·축적·증식 역할이 본분인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을 보자.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롭게 변화하는 예술을 받아들여 가꾸어가는 뒷밭이 되어야 한다. 더구나 앞으로는 미래의 예술이나 기술의 실험을 펼치는 ‘창조관’으로 당연히 거듭나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예술이라는 형식을 사용하는 차원 높은 통합 ‘지식센터’로 전환되어야 한다. 결국 박

물관(博物館)은 정보기술과 문화기술을 접목시키고, 창조와 지식을 아우르는 박정(博情)관(博情館)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외면할 수 없는 디지털화의 추이다. 디지털화는 다른 변화와 함께 온다. 디지털화, 글로벌화, 엔터테인먼트화, 상품화, 소통화라고 하는 다섯 바퀴가 함께 움직인다. 디지털화가 문화예술에 미치는 가장 큰 변화는 문화예술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체험과 창작을 함께 즐기는 소비자(prosumer)로 만든다는 것이다. 지금 문화소비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실현되고 있으니 적극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나아가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이뤄지는 글로벌화는 매일 매일 생활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화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산업화하면서 부가가치가 큰 상품으로 전환하고 즐거움을 주는 최고의 흥행품목으로 만들었다. 더구나 간편한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이용하게 만들어 문화의 소통을 이루는 지름길이 되었다. 문화예술의 변화

에 고개를 돌리고 걷다가는 문화 지체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최근 문화정보 소비실태에 따르면 온라인 활동으로 문화정보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이 자체를 문화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현장에서만이 아니라 가상공간에서 문화활동이 활발한 것이다. 문화소비가 왕성한 젊은층일수록 오프라인 못지않게 온라인과 더 친숙하니 이점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디지털+문화+대동여지도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주어진 주제가 <디지털 + 문화 + 대동여지도>인데 앞의 두 가지는 말했으니 이제 대동여지도를 가지고 말하겠다. 우선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적지 않아 이들의 내용, 방법, 특징을 추스려 차별화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향토문화전자대전]인데 여기에서는 향토 문화자원인 역사, 인물, 지리, 산업 등을 제공하는데,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둘째는 한국문화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지역문화정보체계] 구축사업인데, 지역별로 특

색 있는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며, 특히 전문인력 양성 등 하드웨어적 인프라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는 문화관광부 정보화담당관실이 제공하는 기반문화정보DB구축사업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문화인물, 단체, 행사, 시설물들을 제공하며, DB구축 후 2006년에 '문화시설물 지형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넷째는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종합관광정보시스템으로서 관광자원, 통계, 법령 등을 담은 대표적인 관광정보 제공 사이트로 인정받고 있다. 다섯째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구축하는 [전통사찰관광종합정보시스템]이 있으며 여기에는 전국 877개 주요 전통사찰의 문화재, 설화, 인근 관광명소와 향토음식 등 관광정보 콘텐츠를 확보할 예정으로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은 포털사이트라기 보다는 각자의 개별적 사업으로 주요 항목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을 뿐이다.

‘문화 소비자’ 중심 제작

새로운 일을 벌일 때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주의해야 한다. 디지털문화대동여지도는 우선 문화소비자 중심의 분류체계와

내용의 선별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벌써 세상이 DB천지인데 여기에 또 하나의 DB를 구축하기 보다는 소비자들이 보다 손쉽게 ‘지금 당장’ 꺼내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출장을 끝내고 자동차로 지방도를 달리던 셀러리맨이 남은 시간 1시간동안에 가까운 곳에서 둘러볼 문화자원을 휴대전화를 통해 찾아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온 나라에 퍼져있는 축제나 문화행사를 찾고 싶은 기준에 따라 쉽게 견주어 골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이 기회에 고치고, 표준적인 틀에 맞춰 국민 누구나 자료를 만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자료에 대해서는 인증절차를 통해 공신력이 인정되도록 등급을 매기거나 해야한다.

지도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비교하고, 유비쿼터스 환경에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손쉽고 즐겁게 여러 지역의 문화에 접하도록 돕자는 것이다

이 사업의 전반적인 일개는 아직 구상중이다. 그러나 기본계획에서 문화정보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기보다는 연차별로 소비자수요에 맞춰 중요한 것부터

벌써 세상이 DB천지인데 여기에 또 하나의 DB를 구축하기 보다는 소비자들이 보다 손쉽게 ‘지금 당장’ 꺼내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출장을 끝내고 자동차로 지방도를 달리던 셀러리맨이 남은 1시간 동안에 가까운 곳에서 둘러 볼 문화자원을 휴대전화를 통해 찾아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 이를 발굴, 수집하기 위해서 일정 단계는 추진기관이 담당하지만 점차 기술적 도움을 받아 직간접 관련 기관들이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표준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항목과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먼저 정립해야 한다.

기술적인 문제로서 이들 시스템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다뤄야 한다. 또한 유사한 정보나 중복될 정보에 대하여 관련 있는 기관들과 연계하는 전략적 기본계획도 도출해야 한다.

이 사업을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우선 기존 문화정보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에서 생겨난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그동안 표준화, 링크의 한계, 데이터의

책임성과 대표성 결여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왔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정리하여 처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를 책임지고 생산 주체나 시스템 운영 주체는 누구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정해야 한다.

기대효과 예상보다 커

보다 큰 문제는 재정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단기사업이 아니고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살아있는 정보로서 가치가 있을 터이므로 막대한 소요재원을 적절하게 확보해야 한다. 물론 수익성을 올려 자급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지금 각종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업자들은 콘텐츠 확보에 골몰을 느끼고 있어 이 사업

에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질 것이므로 희망적이다.

디지털대동여지도가 포털성격으로 완결되면 문화정보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망으로 활용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정보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정보검색 효율을 높이고 많은 활용기회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주2일 연휴가 본격화되면 문화생활, 여가생활에 필요한 정보수요가 폭발할 것이므로 여가정보의 산실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또한 문화정보, 문화활동의 정도를 파악하는 문화등고선 역할을 하며 지역문화정책을 위한 중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

나무에 물이 오르는 봄날의 풍습



주강현
(한국민속연구소장/
문화재전문위원)

지난 경칩때 남도땅 백운산으로 등산을 다녀오면서 고로쇠물을 마시고 왔다.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감정은 자연의 이치는 참으로 묘한 법이란 결론이다. 봄은 속일 수 없는 것 같다. 날씨는 여전히 쌀쌀하고, 늦샘추위까지 불어닥치면 제법 춥기조차하다. 일교차가 심하여 환절기 감기도 많이 들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봄은 봄이다. 경칩에 접어들면 산록의 얼음은 그야말로 눈 녹은 듯이 녹아내리고 나무에 물이 오른다.

그래서 경칩이 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은 ‘개구리가 눈뜰다’는 표현이다. 경칩은 완전한 봄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우수와 춘분 사이에 끼어있으니 음력으로로는 2월, 약력으로로는 3월 5일경이다. 겨우내 동면에 들어갔던 파충류들이 기지개를 펴는 날. 그래서 이때쯤이면 논두렁이나 길바닥에 엉금엉금 기어다



지리산의 산촌사람들은 경칩을 전후하여 산으로 올라간다. 고로쇠나무의 밑동에 칼자국을 내고 비닐봉지 파위를 걸쳐 둔다. 그 밑에는 플라스틱통을 설치하여 수액이 졸졸 흐르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고로쇠를 채취하는 계곡에 들어서면 흡사 응급병원실의 링게르 꽃은 환자들처럼 기이한 풍경을 자아낸다. 자신의 몸을 상처내서 많은 이들의 몸을 고쳐주는 수액이니 산신이 내린 젖이라고 할까. 고로쇠는 단연 수액이 많다. 봄이 와서 주체할 수 없이 솟구치는 수액을 사람들이 슬쩍 가로채는 격이다.

니는 개구리를 쉽게 볼수 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아들고 들녘에는 아지랑이가 봄이 무르익었음을 알린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니 이날 온갖 행사가 벌어진다. 논 또는 웅덩이에서 개구리알을 건져먹으면 몸에 좋다고한다. 개구리알이지만 표현은 '옹알먹는다'고 하여 무언가 거대한 꿈에 의탁하는 형식을 보여준다.

이날부터 흙일을 해도 좋다고 하여 벽에 흙을 바른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흙이 녹아나서 집안 수리가 가능해지는 시점이기도 하다. 경칩에 벽을 바르면 빈대가 없어진다고 하여 벽을 바르거나 담을 쌓기도 한다. 해동이 되어 흙에 물을 섞어 벽을 발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논두렁에서는 논둑붙이는 일이 벌어진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논둑이 해동되면서 갈라지거나 무너진다. 가래를 이용하여 험동으로 논둑을 붙이는 일은 논농사에서 첫 번째 해야할 일 중의 하나다. 물론 쟁기를 없혀서 논두렁을 갈아엎는 일도 이때쯤 벌어진다. 한해 농사의 채비를 갖추는 것이다.

지방에 따라서는 이날 보리썩으로 점을 친다. 물오른 썩의 상태를 보아 농사를 예감한다. 풍농점(豐農占)을 통하여 한 해 농사의 풍흉을 가리는 것이다.

이같은 풍습들은 거개가 사라졌다. 그렇지만 여전히 현대적인 도시의 삶 속에서도 경칩의 전통은 남아있어 집수리가 대대적으로 벌어지는 절기이기도하다. 그래서 미장이,목수 같은 일꾼들의 일손이 가장 바빠지는 절기이다.

많은 풍습이 사라졌지만, 과거보다 더 극성을 부리면서 이어지는 풍습 중의 하나가 고로쇠 수액 마시기풍습이다.경칩에 마시는 수액은 만병에 유효하다고 하였다. 문헌에 따라서는 반드시 고로쇠만 먹는 것은 아니다. 단풍나무를 베어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먹어도 좋다고 하여 지방에 따라서는 단풍나무즙을 먹기도 한다. 물론 고로쇠나무 자체가 단풍나무과에 속하니 마찬가지로는 하다. 단풍나무과에는 단풍나무,고로쇠나무,당단풍나무 등 여러 종이 있다. 겨우제나무의 수액도 단연 인기다. 그러나 단연 강력한 풍습으로 남은 것은 고로쇠 수액마시기다.

고로쇠나무는 남부지방의 해발 300미터 이상되는 산간에는 어느 곳 예나 널리 분포된다. 산간에 자리잡은 나무인지라 밤기온이 영하 3-4도, 낮기온은 영상 10도로 일교차가 15도 정도로 되면 고로쇠수액이 많



이 나온다. 너무 높은 고산지대에서는 일교차가 작기 때문에 수액 채취에 적당하지 않다. 고로쇠는 20여미터로 성장하는 낙엽고목으로 잎은 단풍잎처럼 5-7개로 갈라지며 꽃은 5월에 핀다.

지리산의 산촌사람들은 경칩을 전후하여 산으로 올라간다. 고로쇠나무의 밑둥에 칼자국을 내고 비닐봉지 따위를 걸쳐둔다. 그 밑에는 플라스틱통을 설치하여 수액이 졸졸 흐르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고로쇠를 채취하는 계곡에 들어서면 흡사 응급병원실의 링게르 꽃은 환자들처럼 기이한 풍경을 자아낸다. 자신의 몸을 상처내서 많은 이들의 몸을 고쳐주는 수액이니 산신이 내린 젖이라고 할까. 고로쇠는 단연 수액이 많다. 봄이 와서 주체할 수 없이 솟구치는 수액을 사람들이 슬쩍 가로채는 격이다. 그래서 지리산 계곡의 고로쇠숲에는 곳곳에 통을 벌여놓은 진풍경을 볼수 있다. 모든 생명있는 동식물은 봄을 즐긴다. 봄은 약동의 계절이기 때문. 고로쇠라고 예외가 아니다. 고로쇠는 왜 경칩에만 나올까. 물론 반드시 경칩일에만 수액을 채취하는 것은 아니다. 우수를 전후해서부터 시작하여 경칩무렵이면 절정에 달할 뿐, 전후 시기에 넓게 채취한다. 가령 거제 고로쇠액은 전국에서 제일먼저 1월 20일경부터 2월말까지 채취한다. 다른 지역보다 1개월여 빨리 채취되어 고로쇠약수제와 함께 외지사람들을 손짓한다. 풍토에 따라 수액이 오르는 시기가 약간씩 차이가 난다.

그러나 수액은 치밀어올라오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있는 법이다. 경칩이 바로 그 절정에 해당된다. 바꾸어말하면 경칩에는 모든 만물이 소생하여 새롭게 재상되는 자연의 시간임을 알려준다. 선조들이 경칩이란 절기를 설정하여 계절이 바뀌는 분기점으로 삼은 지혜가 새삼 놀랍다. 자연에게 감사할 일이다. 산에게 감사할 일이다. 그리고 경칩이란 절기만 되면 어김없이 물이 오르는 자연의 신비에 대하여 감사할 일이다. 그러나 최고의 감사의 뜻은 역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수액을 내주는 고로쇠에게 인사할 일이다.

시대가 변하였지만 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 같다. 자연의 이치도 변한 것이 없다. 변한 것이 있다면 사람들의 탐욕뿐이다. 갓 눈뜬 개구리를 잡아먹는 반생태적인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고로쇠물을 적당히 마시는 것은 좋은 일이나 지나치다싶을 정도로 호스를 들이대서 수액을 아낌없이 빨아낸다. 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심성이 그만큼 반자연적으로 변하였음을 알게 한다. 봄을 봄답게, 자연의 흐름에 의지하면서 공생하는 법칙이 사라지고 있는 세태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하다. 그렇게 경칩이 오면 봄이 오는 것이며, 어느 노랫가사처럼 봄날은 훌쩍 지나쳐 가고 여름을 준비하는 것이리라. **유**

문화분권과 지역문화진흥 대토론회



‘문화분권과 지역문화진흥 대토론회’가 지난 2월 20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윤병로 성균관대학교 교수 사회로 문화관계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 내용을 간추려 실는다.
(편집자 주)

인 사 말



권용태(전국문화원연합회 회장)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와 변화된 마인드읽어야

지금 우리 사회는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가고 있다. 정부의 문화정책도 문화분권의 실현을 통해서 지방문화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지방문화 진흥책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지방문화분권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은 물론이고 문화 역사의 정체성확립이나 지역문화의 특성화를 위해서도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부상이 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지역문화정책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은 자성해 보기도 하고 또 조명해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지역의 문화를 변방의 문화로 생각을 하고 케케묵은 문화로 생각을 하고 한물 간 문화로 치부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지역마다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지방분권화시대에 진정한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구심점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기 개혁과 더불어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혜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에 안주하거나 방심해서는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 현실 여건이 열악하지만 사명감으로 새로운 문화창조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와 변화된 마인드를 읽어야 한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지역문화의 현 주소를 정확히 진단을 하고 그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

사회



사회 : 윤병로(성균관대 교수)

윤병로: 오늘 토론회 제목과 같이 21세기가 정보화시대니 문화의 시대니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문화가 뒷전으로 밀리는 감을 통감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문화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또 이 목소리를 모아서 전국에 전파하게 될 것이다.

오늘 제한된 자리이지만 현장의 좋은 의견제시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이것이 문화정책에 직결되어서 재현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문화분권과 지역문화진흥 대토론회인데 아까 전국문화원연합회 권용태 회장으로 부터 기초적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자로서 그 말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러면 대 주제에 상응한 세부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순서로 진행하겠다.

제 1 주제

문화분권 실현방안

발 제 이원태(한국문화관광정책개발원 연구위원)



지방문화분권 혹은 지역문화 진흥을 이 시점에 다시 얘기해야 되는 상황은, 우리가 나서 자란 시골에서는 사람이 사람이 살지 않아 어린 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비전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문화가 낙후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조상이 내려준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환경이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은 우리 농어촌이나 시골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지방을 살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문화적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지방문화분권의 핵심 개념이라고 본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서울 사람들이 시골에 가게 되면 하룻밤 자고 밥 먹고 자동차 기름 넣고 해서 최소한의 분배가 이루어졌는데 4월 1일 이후부터는 경부 호남고속철 개통으로 부산이나 목포쪽은 다녀와서 점심을 먹게 되었다. 그 만큼 고속철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대신 지역 입장에서는 그 반대현상이 일어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고속철 개통으로 지역문화 변화예상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문화원장님들의 당면 현안이 아닌가 보여진다. 참여정

“문예진흥기금 절반가량 지방으로 이양해야”

부의 국정 철학이 자율, 분권, 참여라고 하는데 자율이나 분권은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고 하려면 할 수 있는 수단,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농어촌에는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진정한 자율이나 참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죽은 것과 진배없는 농어촌을 살려야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참여 분권정책이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이러한 기본 틀 위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 흐름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갈 것이다. 그 흐름의 바탕 위에서 우리는 문화의 균형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책을 짤 것이다.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수도권은 단순히 사람이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왔다. 따라서 사람이 모여드는 지역에 권력이 집중된다. 정치권력 문화권력 심지어 예술인까지도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고 이 사람들에게 의해 문화정책이 결정되다 보니까 수도권에는 과도한 집중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한 쪽으로 편중이 될 때 더 많은 지역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정치적인 관행 위에서 수도권이 과밀화되었고 또 하나는 재원도 마찬가지였다. 국가 예산도 개인 살림살이와 같이 꼭 지출해야 할 곳에 안 쓸 수 없는 것인데 쓰고 남는 가용재원을 가지고 문화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효율성을 위주로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에 그

재원을 투입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됨으로 수도권지역에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작년에 문예진흥기금 중에 순수지원금 278억원 가운데 32억원만 15개 시도에 지원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의 반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산다고 해도 50%만 수도권에 주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가야하는데 지방 소 도시에 공연작품 만들어 봐야 구경할 사람도 공간도 부족한 나머지 효율성의 논리로 재원분배도 왜곡되어 왔다.

‘행정편의’ 막을 방안 강구해야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과 제도를 개정해서 문예진흥기금 20%를 지방에 줄 것이 아니라 반쯤을 지방에 주고 받은 수도권에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록 지방에 준 것이 효용가치가 떨어질지라도 불균형해소 차원에서 약간의 불균형정책을 쓰자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문화원육성법에 의해 지방문화원이 만들어졌는데 법 제정 이후 문화원 설립근거 이외에는 아무 것도 보장해 주지 못하는 현실이다. 예총이나 민예총 등 새로운 문화주체들이 기성의 권위와 상관없이 활동하게 되므로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차제에 관련법을 정리해서 별도로 지방문화예술진흥법을 만들든가 아니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지방문화위원회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자치단체가 행정편의로 가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우**

토론 오수길(고양문화원장)



지자체의 향토문화 업무를 문화원으로 이양할 방법은?

문화정책과 문화행정, 문화원의 관계 속에서 문화분권의 개념이 정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지방문화의 자생적인 문화형성을 위한 말씀으로 이해를 했다. 그런데 현정부에서도 ‘문화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 했다.

정부는 문화분권을 위해서 과연 문화를 되어지게끔 하는 것이냐 되도록 만드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볼 때 얼마 전 지방문화원의 사무국장 채용문제를 보면 연봉 2천만원이라고 해서 잘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향토문화연구비가 삭감되었다. 이것이 지방문화원을 키우기 위한 분권문제를 조장해 준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방법을 택해서 실수한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다. 그 결과 지방문화원에서는 향토문화연구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 동해시에서 있었던 전국민속경연대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을 해서 그런지 전국문화원연합회장이나 지역 문화원장들의 관계가 소원하게 취급되는 경우를 보았는데 이것은 행정적인 모습에서 권력기준에 의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도 각 지방의 문화원에서 예술활동하는 단체들을 인솔해서 갔는데 문화원이라는 이름자체를 찾아 볼 수 없었다.

향토문화의 발굴 · 조사 · 보존은 지자체의 문화관광과 공무원들이 해 오고 있는데 공무원은 잦은 이동으로 전통문화 보존이나 전승, 문화재관리

등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문제를 우리 문화원으로 넘겨줄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겠는가? 그리고 정부에서 문화원 육성에 대한 자활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문화원 운영이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해서 회원들의 회비에 의해 운영되는데 그러다보니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문화원 건물이 없는 곳에는 건물을 지어주어야 마음놓고 강화를 이어갈 수 있다.

단위적인 향토문화를 가지고 행사를 할 때 지역주민의 호응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인접 문화원과 연계된 문화권을 형성해 나가는데 힘을 쏟아주십사 하는 것 하고, 또 문화원이 전통문화를 다루는 입장에서 문화육성 조례법에 의한 기금을 마련해 준다면 지방문화가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토론 강진갑(경기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지자체 문화정책부와 지역문화예술발전위원회의 관계는?

이 발표문의 상당부분이 지역문화의 문제점을 잘 지적을 하고 있고 발전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동의한다. 그렇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단순히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실현을 전제로 한다고 했을 때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문화예술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지금까지

지방문화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거나 위탁을 해서 문화정책들이 집행되었는데 새 예술정책에 의한 지역문화정책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지역문화발전위원회에서 하겠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 부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둘째, 과거와 달리 중앙에서 일률적인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따르지 않는다고 하였을 때 법적 근거나 예산 등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할 텐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문화예술발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동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셋째, 문화환경조성부분에 있어서 문화도시를 가꾸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 문화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문화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입법을 계획하는 것은 방향을 올바르게 잡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문화도시를 육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화정책 영역만의 것은 아니고 건설 교통이나 지방자치, 농림 등 정부측 영역과 연계 하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문화예술예산 5% 이상 편성 의무제는 지역의 문화예술인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있는데 발표문에는 예산회계법의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간단치 않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다섯째, 문화행정 전문직렬 설치는 역시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지방문화원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문화마인드를 집어넣고 나면 1년만에 바뀌어 버리는데

이 부분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순환보직이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보아 전문직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답변

이원태(한국문화관광정책개발원 연구위원)

문화정책 ‘독점’에서 ‘분점’으로

오수길 원장님이 사무국장 공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문화원 사무국장들은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개방해서 선출직으로 함으로써 문화원을 활성화시키자는 정책이지 문화원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하는 것이 아닌데 가끔 불편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해는 된다.

나머지 부분은 이해를 바라고, 강진갑 박사님 지적 중에는 지방문화정책위원회를 만드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했는데 지금까지 행정기관은 자기들이 가진 재원이나 제도를 가지고 마음대로 해온 것을 이제는 분점하자는 것으로 지방문화정책 위원회에 문화정책 영역의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넘겨 준 지원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집행한다든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예산 5%는 강제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지방에서 5%를 편성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겠다, 앞으로 문화예산 지원을 총액예산제로 바꾸겠다, 많이 편성하는 곳은 그 만큼 더 주겠다는 얘기이다.

지방문화행정 직렬은 사실 나는 반대했다. 이것은 지방행정에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 보직을 개방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지역의 예총이나 문화원같은 곳에 인력들이 많으니까 이 분들도 들어와서 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자는 것이 개방직의 취지다. [9]

제2주제

지역문화의 활성화 방안

발 제 홍사중(경기도 문화예술회관 관장)



몇 년전 인천시 인현동에 있는 한 생맥주집에서 여고생들이 화재로 죽은 사건이나 서울대학교 연못에서 신입생들이 학생회장 뽑아

놓고 사발주를 먹고 통과의례처럼 연못에다 집어 던졌는데 바로 죽었다. 이것은 문화공간의 사회적 역할과 소임을 다 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문화공간의 운영책임자들은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인간은 다 억압 속에서 산다. 윤리 질서 도덕 규범의 억압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억압으로부터 일탈하려는 욕구를 끊임없이 갖고 있다. 이런 욕구를 아주 저차원 쪽으로 해결하는 것이 림싸롱을 간다든가 생맥주집에서 미성년자들이 술을 먹고 사고를 당하는 일 등이 그 억압욕구를 불건전하게 해소하는 것이다.

문화공간은 억압욕구 해소하는 곳

이런 억압욕구를 건전하게 카타르시스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문화공간이 아닌가? 지역의 문화원도 바로 이런 해소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나는 문화공간들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건강한 문화발전에도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우리 경기도는 문화공간이 문예회관 20개, 시민회관 17개, 기타 2개와 건립 중에 있는 것이 8개가 있다. 일본과 비교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문화원도 경기도지회를 비롯해서 32개를 보유하고 지역문화의 전진기지 역할을 다하고 있다.

나는 이런 지역공동체 형성에 아주 중요한 지역커뮤니티의 중심역할을 하는 문화예술회관이 과연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대답한다. 많은 문화공간이 창조적인 공간이기보다는 문화의 소비공간으로서의 역할의 한계를 느끼고 있지 않는가? 특히 서울의 주변기지화 되어 있지 않는가? 지방의 문화공간 또는 문화원의 역할이 창조적인 문화가치를 창출해서 지역의 정체성 화립과 문화이미지를 창출해 주는 아주 조직적이고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밖으로 문화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역할로서 문화와 복지가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과 타 영역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경쟁력을 포함해서 문화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해 주어야 될 중심축이 바로 문화공간이라고 생각한다.

문화경쟁력 강화 중심축이 문화공간

이러한 역할들이 모여서 지역공동체의 문화적인 응집력을 활성화시켜 주고 바로 문화응집력이 사회응집력이고 이것이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방의 문화예술공간이나 문화원의 역할을 문화창조공간이 아닌 문화소비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사무국장 얘기도 나왔는데 전문적인

“전문인력이 일할 수 있는 효율적 시스템 절실”

운영시스템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전문가가 운영을 안 하니까 시설 임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것은 지역 공동체 형성의 중추적 역할을 포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문화공간의 사회 문화적인 역할, 극장도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고대 시민사회를 묶는 강력한 중심적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해 왔는데 건강한 의미에서의 민주 사회의 정치적인 국민통합을 할 지역사회를 통합한다든가 문화응집력을 통해서 전체의 주민 공동체를 통합하는 기능을 해야 할 터인데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는가 문제점으로 얘기해 보고 싶다. 지역문화 예술의 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 문화공간 운영시스템의 전문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문화예술공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현재 문화공간 운영시스템을 볼 때 우리 경기도에서도 직영 사업소로 운영하는 문화공간이 많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운영을 하는데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공공가치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장점도 되지만은 전문성과 사업추진 의욕의 결여나 수익사업 개발의지의 부재를 비롯 전문 인력확보가 불가능하고 또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 못하는 단점도 있다.

문화예술과 공교육 연계프로그램 시급

나는 지역문화예술회관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문화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추진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문화예술과 공교육을 연계시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지역사회가 발전하려면 교육환경과 문화환경이 좋아야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사람들은 삶의 질이 높은 곳에서 살기를 원한다. 특히 예능교육 연계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문화 특활을 우리 문화공간이 대신해 주고 책가방 없는 이런 시간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공연장이나 문화원에 와서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복지연계 프로그램의 개발인데 우리 사회의 복지가 생계형 복지와 노인형 문화에서 이제는 댄스나 노래 한국무용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는 복지시설 소외지역 등에 모세혈관 문화운동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떠나가고 있다.

그리고 지역이미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주는 일이 중요하다. 

토론 홍재구(용인문화원장)



주민과의 신뢰형성이 최우선 당면과제

일선 문화원장으로서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위주로 살펴 보면 우리가 먼저 자성을 하지 않고서는 지역문화 활성화는 어렵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행정이 문화원의 위상을 위해 도와 준다는 측면도 있겠으나 어떤 면에서는 예총이나 문화원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청년회의소나 로타리, 라이온스가 자기 주머니 돈을 털어내면서 잘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원’ 하면 정부 돈만 가지고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때 보조금 전액을 사업에 투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다.

경기도 쪽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이천문화원의 경우를 보면 회원을 늘려서 그 회비 수입으로 많은 지출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행정 쪽에서도 신뢰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지역문화 활성화에 근간이라고 본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만 수령해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력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국민소득은 2만불을 지향하면서도 우리의 문화의식은 5천불 대에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닌가?

토론 이석기(예총 수원시지부 예술기획단장)



지역문화 예술인이 관람객되어선 곤란

평소 지역 인재육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지역 문화 행사를 많이 하는데 외부 공연단체를 초청하

는 경우가 많은데 수원에서 국제음악제가 열렸을 때 지역의 음악가들은 전혀 참가하지 못하고 관람객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 주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지만 지역 예술인들은 거기에 설자리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것은 지역 예술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빼앗기지 않았나 본다.

홍사종 관장님께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 예술단체들을 거느리고 기획공연과 기획전시회가 많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왜냐 하면 지역 예술인들은 그 지역의 큰 자산이므로 키워가야 한다는 점에서 건의하고 또 하나는 수원예총에서 수원시민들을 상대로 지표조사를 했는데 수원문화예술회관을 가장 많이 찾는 시민은 팔달구나 권선구민으로 나왔지만 문화공간 관람횟수로 볼 때에는 영통구민이 많았다. 그런데 영통구민들은 수원에 있는 문화공간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마 영통구민들은 교통이 편한 서울 강남쪽을 찾는다는 결과가 아닌가 한다.

이러한 자료는 문화정책을 입안하는데 기초자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화지표조사를 해 본 적

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하실 의향은 있는가? 만일 하게 된다면 문화정책을 입안하거나 시행하는데 좋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답변 홍사중(경기도 문화예술회관 관장)

이석기 선생께서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이 경기도의 문화적인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데 과연 예술단체 활용이 아닌 지역문화 예술단체를 활용할 프로그램이 있는가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은 없었다. 경기도는 문화의 창조적 거점기지가 아니라 단순한 소비지로 전락되어 있어 서울에서 창조한 예술작품을 불러다 공연해 주니까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의 모든 프로그램은 서울보다 못 하더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역의 문화 예술단체들이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한다. 우리가 그런 부문의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놓고 있다. 앞으로 우수한 예술작품을 발굴·육성하는 일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또 문화원의 역할도 바로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지역문화 책자 발간하는 역할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인 응집력을 강화시켜서 지역문화 발전의 견인차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해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영통구 주민이 문화의식이 높은 반면에 수원지역에서의 문화소비 비율이 낮고 오�히려 팔달구 권선구 주민이 높다. 그런 조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영통구 주민들이 서울 쪽에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원지역의 문화활동은 서울보다 못 하다는 잠재의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화지표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기도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문화공간들이 지역사회의 문화적인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좋은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고 공급하는 문화창조자의 역할을 우리 문화원이나 문화공간이 해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제3주제

지역문화의 특성화 방안

발 제 정원일(경주대 교수)



한 지역의 인간집단이 갖는 동질적인 생활양식의 총체가 곧 지역문화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생활양식이자 사교방식을 지역문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문화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세계화시대에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화의 가장 큰 목적은 ‘남을 도와야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남을 알고 나를 아는 방법이 곧 문화가 아니겠느냐 두 번째로는 옛날처럼 정치군사적으로 남을 침략하던 시대는 끝났다. 전보다 교묘하게 문화적 경쟁을 통해서 문화적 침략을 해 놓은 다음에 경제적 침략 정치적 침략 군사적 침략이 자행되는 살벌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특히 이 시대에 우리는 고유의 문화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면서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

‘지역의 독특함’은 상품화의 기반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문화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역문화가 전부 다르다는 것이다. 서울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을 볼 때 다 똑같이 경상도 사투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울산 말 다르고 경주 말 다르듯이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역의 독특함은 다 같이 상품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반이기도 하다.

그러면 문화를 개발해서 상품화하고 관광자원화할 때 지역 이미지를 팔아서 다른 토산품과의 직접적인 관련을 맺을 수가 있어서 경제적인 이윤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주변환경을 살펴보면 문화도 경쟁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지방자치제와 주 5일 근무제의 실시로 여가 수요에 따른 문화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비롯해서 문화상품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왔다.

주5일 근무제로 문화 수요 급증

지금까지는 지역문화 육성에서 볼 때 경쟁이나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반대나 소극적인 입장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러한 열풍에 어느 정도로 어떤 부문에 어느 수준까지 동참해야 할 것이냐 하는 데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민이 외지인에 우선한다는 시각으로 경쟁력은 주민에게서 받는 사랑과 관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1회성 외부 유명 인사를 초



‘경쟁력’ 발굴 육성이 선결 요건

청하는 것보다 그 지역에 뿌리를 둔 문화교실 운영 같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역 문화원을 공교육의 보완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향토애를 가진 사람은 지역을 떠나지 않으며 혹 떠나도 그 지역을 늘 생각하고 있다. 미래의 주민 확보수단으로서 지역문화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주 5일 수업의 보완책으로서 문화원이라는 공간을 활용한다면 문화원의 위상강화와 역할증대를 도모할 수도 있다.

지역문화 활성화의 전략으로서 먼저 단기전략에서는 경쟁력을 구축하는 단계로 지역문화를 둘러싸고 있는 역량 등을 알아보는 현황파악을 한 후 축제나 토산품 등 부문 내에서의 경쟁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부문간 경쟁을 시킨다. 그래서 가장 경쟁력 있는 문화요소를 찾아 우선 순위를 매기고 또 지원행정체제를 구축해서 민·산·관·

학의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지역 인프라 구축을 하고 또 홍보와 마케팅을 하고 이를 다시 정기적 평가를 해서 수정 및 보완을 함으로써 또 다시 현황 분석을 하는 이른바 자체 경쟁력을 1단계 확보하는 것이다.

문화원이 지역문화 구심점 역할해야

장기 전략으로는 경쟁력이 확보되면 외부로 힘을 뻗는 것이다. 이 때는 인근지역이나 인근 문화원과의 상호 보완으로서 이웃 문화원에 가서 공연도 해 주고 운영상의 노하우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역문화의 역외수출이다.

현재 지역마다 문화강좌를 하는데 각 대학의 사회교육원, 복지관 등 비슷한 강좌가 많아서 애로가 많다. 이것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지역의 큰 문화원과 작은 문화원들이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결론적으로는 급격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지역문화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겠고 장 단기 전략으로 먼저 자생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문화 예술부문이 특히 자존심문제로 해서 협동을 이루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 그러나 시대변화에 따라 문화원이 좀더 지역문화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갔으면 한다. 



토론 최종수(과천문화원장)



자치단체장 의지 · 인력 · 예산 아쉬워

주제발표에 많은 공감을 한다. 여러 가지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 싶다.

문화의 계승 발전에 있어서 전통문화를 배제한 채 외래문화 수입문화를 위주로 해서 발전되는 부분이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지방문화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7년전에 과천에서 축제를 할 때 하나의 장르로서 이벤트 행사로 장승세우기를 했는데 집행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다.

그 내용은 장승을 세우면 과천시민들이 별을 받을 것이다, 또 한 쪽에서는 전통문화로서 이정표로 이 행사를 위해 세워야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서 갑론을박하다가 세우기는 했지만 당초에 정해진 장소에 못 세우고 한 쪽 구석으로 밀려났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표 때문에 몇몇 목소리 큰 사람들에 의해 끌려가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우리의 전통문화와 지역문화를 지켜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무엇이 있겠느냐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문화원의 역할에서 교육의 보완이나 주 5일제 근무에 대한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 문화강좌 운영에 있어서 저명한 강사 분을 모시려면 거기에 상응한 예우를 해야 한다. 과천문화원의 경우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2명의 간사 직원이

있는데 그들에게 주는 급료만도 회원들에게 청소비 얼마 받아서 모으고 다른 행사비에서 조금 모으고 해서 주는 형편이다. 또 다른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 문화원장과 이사들이 주머니 돈 털면서도 여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실제로 시민들에게 접근해 활발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은데도 인력과 재원부족으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문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되어야 지방문화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토론 김영기(한국민족예술총연합 경기도 지회장)



문화가 상품화되고 경제적 가치로 치부되는 것은 곤란

21세기에 와서 지방 자치단체나 각 예술단체 문화단체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돌이켜 보는 것 보다는 무한경쟁사회로

치달다 보니까 문화원과 예총, 민예총이 각자 무엇을 해야 되는가의 중복 행동 속에서 갈등을 빚는 부분들이 있다. 또 지자체에서도 과잉경쟁을 일삼다 보니까 문화가 상품화되고 문화가 경제적 가치로만 치부되고 있어 목적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빚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은 소중한 기획이라고 생각한다.

정원일 교수의 발제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은 관점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문화는 상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이고 후세들에게 문화적 정체성에 혼돈을 야기할 것인가

를 고민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는 상품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 부분으로 집약을 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근간에 파란이 되었던 ‘이승연의 누드’와 같이 상품적 가치로 예술을 문화화하는 문화적 세태가 현실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크다는 것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관습에 의해 만들어지고 후세에 전해질 수 있는 정신적 가치를 절대적 가치로서 승화시킬 수 있는 기간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력을 생산해 내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사회 욕구 충족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우리 지방에는 경기도당굿이 있는데 우리 민속문화 또는 우리의 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뿌리내려 온 현대화된 문화인데 이것을 관광자원화하고 상품화한다고 했을 때 도당굿을 행하면서 기원하는 부분들이 전수가 될 것인가, 또는 세계에 알려질 것인가, 오색 복장으로 춤추는 현란한 무용이 우리의 문화로서 세계에 알려질 것인가를 내용면에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재정 확충의 운영시스템을 개발하는 부분이나 인력, 인프라 확대방안, 정책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참여의 확대를 위해 위원회의 구성이나 지방조례의 제정 등에 있어서 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삶의 형식들이 외부에서 보았을 때 활성화되어 있다고 느낄 정도로 특화되어 있어서 관광화할 수 있고 관심을 갖고 그 지역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다른 인프라가 필요할 것이다.

또 문화상품이나 관광적 측면에서 지자체간의 경쟁을 자제하게 할 수 있는 절대적 가치를 교육시키는 시스템 개발이 중요하다. 경기지역의 문화적 특수성 확대를 위해서 행정권역의 편제를 문화권역적 벨트화로 문화네트워크화시켜서 경기문화의 정체성을 되짚어볼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핵가족화 되어 있는 현대사회의 공동체사회가 무너져 가는데 인성개발을 위해 노인정에 젊은이들이 오고 청소년문화센터에 노인들이 쉴 수 있는 복합적인 문화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분권을 이룩하기 위한 결론은 지역주민들이 문화생산과 향유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문화적 정책생산이나 행위에 직접 참여해서 참여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실천력을 담보하게 하는 것이 문화분권이라고 생각하고 지역문화의 특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삶 자체를 외부에서 보았을 때 경쟁력 있게 볼 수 있는 안정된 문화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람직한 답이라고 생각한다.

답변 정원일(경주대학교수)

좋은 지적이다. 똑 같은 고민을 많이 했다. 지역문화를 과연 상품화를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단계별 검증을 해서 상품화 쪽이나 보존 측면에서 구분개념이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

제4주제

지역문화 진흥과 문화원의 역할

발 제 최정학(연수문화원장)



이 시대를 사는 사람
이면 모두가 21세기 정
보화시대, 정보혁명시
대, 지식기반사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 이
러한 시대의 정착으로

나타날 현상은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모든 지식
과 정보와 문화적인 표현들이 안방에서 구체적으
로 만나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 대중은 매
체를 통해 세계와 만나게 되고 자신의 삶의 현장
에서 문화를 접하게 된다.

그간의 공교육이나 관 주도의 문화적인 시스템
과 공간만으로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힘들 것
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지역문화진흥을 하는데 기
본이 지역문화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지역문화를
진흥하려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과 다
양성 창의성들이 자율적으로 생성되고 모아지고
표현되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
문이다.

문화원도 지역문화운동 촉매제 역할해야

지역문화운동이 살지 않고는 많은 예산을 투입
하고 행사를 갖는다고 해도 눈앞에 보이는 표현들
은 많아지겠지만 진정한 삶의 알파가 되고 오메가

가 되는 문화적 진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역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문화적인 수용과 소화 그리
고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유통됨으로써 지역과 지
역이 매개되는 일에 관심을 가져 나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 문화원도 지역문화운동을 건강하
게 살리는데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한
다. 어려움도 많지만 그래도 자원과 여건을 갖추
고 있는 곳이 바로 문화원인데 문화원 자체 발전
을 꾀하기보다는 지역문화 발전책을 모색하다 보
면 그 결과로서 문화원의 발전은 당연히 올 것이
라고 생각한다.

지역문화진흥과 문화원의 역할을 세가지로 나
누어 보았는데 첫째가 소통을 매개하는 길이다.
문화 자체가 소통하는 것으로서 지역내의 소통,
타 지역과의 소통, 세계화의 소통을 매개하는 일
이 중요한데 이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문화진흥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역에 막혀 있는 커
뮤니케이션을 복원해 내는 것과 지역의 정보가 유통
될 수 있도록 소통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광장
을 만드는 일이 바로 문화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
다.

우리 문화원은 다른 문화단체들과 달리 공간과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을 모
이게 하고 대중들을 모이게 한다. 바로 이곳에서
작가와 작가들이, 또 작가와 평론가들이, 작가와
문화촉매자들이, 또 때로는 예술가들과 행정가들
이 만나서 대화하고 싸우는 곳이 문화원이 되어야
한다. 작가와 대중들의 결합과정을 통해서 그 공
간과 시설에 대한 의미를 보다 생산적으로 재해석
하고 열려있는 공간으로써 문화원은 관리만 할 뿐
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지역문화 지원센터’로 위상과 역할 정립 필요

문화예술인의 발굴 지원에 역량 보여야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적 정보를 지역내에 소통시킬 수 있으며 지역내의 인적자원이나 문화적 자원을 세계화시키는 소통의 역할도 할 수 있다. 기관지의 발행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많은 매체를 가지고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문화예술인을 발굴 지원하고 창조적 역량을 배가시키는데 문화원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문화원을 구심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산과 또는 축매로서 불꽃이 아니라 불쏘시개로 자처하면서 지역을 섬기는 종이라는 자세로 나아갈 때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향토문화유산관리 문제인데 지역의 모든 지적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곳이 문화원이다. 지역성을 탐구하는 일은 그 지역의 지역문화를 지역문화로써 가능하게 하는 일이다. 그 동안 이러한 향토 지적자산을 보존 선양하는 일에 희생과 헌신해 왔다. 그럼에도 지역문화운동이나 관광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 디지털시대에서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D/B화 함으로써 정보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일을 통해서 그 지역성을 갖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일은 국가나 지방정부 또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의 문화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향토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조사해 온 분들은 사재를 털어 가면서 일생을 바쳐왔는데 이것이 지역학으로 위상을 정립하는데는 자금과 인적자원의 결합이 필요하다. 또 이것은 지금까지 해 온 열성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

교육과 문화를 통합하는 매개체

세 번째로는 평생교육문제인데 교육과 문화가 함께 가지 않고 따로 따로 가는데 문제가 많다. 중앙 정부에서는 이것을 갈라놓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 삶의 현장에서는 통합되어 있다. 우리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취득해나가는 과정은 문화적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역에서 교육과 문화를 통합해 나가는 매개체가 바로 문화원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에 평생교육의 붐이 일어나고 있어서 콘텐츠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자원을 DB화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 중복투자를 막고 서로의 특징과 장점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문화원이 유통의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의 문화운동을 매개하는 것을 통해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대중의 다양성과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지역문화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원은 지역문화지원센터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토론 김태원(안성문화원장)



**지역문화 진흥위해
관계 법령 보완해야**

최정학 원장님의 발제에 전적으로 동감을 한다.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전제는 지역문화의 탐구와 지역정체성을 만

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은 지역 대학과 연계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근·현대사를 연구하는데 미진한 점을 함께 연구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역문화를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향토문화와 전통문화에 대한 저축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홍보하는 일이 우리 지방문화원들이 해야 할 큰 역할이다.

이것은 문화학교를 통해서 하는 일이 가장 바른 길이며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조율하여 지역문화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은 이번에 제정하는 법의 틀 속에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원의 역할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을 보강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안성문화원의 경우 반세기에 걸쳐 문화원을 운영해 오면서 지역문화를 나름대로 연구결과를 통해서 발표하면 곧 그것이 지역 축제로 불쏘시게 역할을 해 왔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원이 지역의 문화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법을 보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인 문화 속에 예술이 꽃 피고 관광산업도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고 보

아서 우리 향토의 지적자산을 공유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문화진흥법에 어떤 점을 보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발제자에게 묻고 싶다.

그리고 개발의 미명으로 전 국토가 한없이 파헤쳐지고 있는데 지표조사에 대해서는 그 지방문화원에 향토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 이 분들에게 일차적으로 조사를 의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제의를 한다.

토론 박정임(중부일보 문화부장)



**‘호주제 폐지 반대’
위상에 어긋난 성명**

내가 몇 해전에 겪었던 일로서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대표를 알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해

외에서 공부한 유학과 박사로서 요즘 젊은이들의 표상이었다. 위암 선고를 받은 그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넘겨 받은 아들이 오십대 육십대 임원을 모두 해고시킨 다음 본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젊고 패기 있고 해외 유학과 출신들로 임원진을 구성했더니 그 결과 일년 안에 문을 닫았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방문화원은 지역민들의 생활과 살아 온 길을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정립해서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밀착감 있는 행사를 추진할 수 있어야만 문화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또 문화원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열린 민속놀이 한마당도 웃눌

이 연날리기 등 기존에 해 왔던 행사위주였다. 이것은 젊은 세대나 문화향유자들이 보았을 때 전혀는 높이고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과연 지방문화원이 지역민들에게 맞출 수 있는 인적 인프라와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편찬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역문화원의 취지가 전통문화 계승이다. 남들이 할 수 없는 고유의 영역이고 누구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다. 몇 해전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가 발간한 ‘경기논맬소리’라는 책은 사료적 가치를 떠나서 일반 독자들이 보았을 때 아무런 메리트가 없다. 홍보는 물론 책 자체의 편집이나 비주얼시대에 맞는 부분도 전혀 없다. 책이 나오는 순간 책꽂이에 꽂히는 결과인데 나는 지방문화원의 제일 문제가 홍보부재라고 생각한다. 인적 인프라의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역주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지방문화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다양한 기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얼마 전에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가 호주제 폐지와 관련해 낸 공동성명에서 개인적인 찬반 의견은 천차만별일 수 있겠지만 지역문화원이 공동으로 사회적 민감한 사안에 적극적인 반대표시를 했다는 것은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수용해야 할 문화원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태도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전통문화 계승이라고 하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문화원만의 역할의 사업이 현재 문화원장님들의 사비를 털어 가며 사무직 직원들의 월급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역민들과의 보다 밀착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곳이 문화원이기 때문에 지방문화의 본거지로서 구심적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과 당부를 드리고 싶다.

답변 최정학(연수문화원장)

새로운 비전 바탕으로 정체성 수립해야

김태원 원장님의 말씀은 모든 문화원들이 앞으로 향토 지적재산에 대해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관리·연구할 수 있는 내적인 역량을 갖추자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또 역량을 갖추었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향토 자산관리 정책과 연결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 우리 전국문화원연합회가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켜 가야할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박정임 선생께서 따가운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그것이 우리를 자극하는 새로운 가시가 될 것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제 우리 문화원들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역의 정체성 수립은 그 지역의 문화적 비전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 지역의 문화적 목표와 전략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문화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 홍보나 기획력의 부재도 지적했는데 문화원이 자신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야 하겠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과 지역의 교육적 기능이 파괴되고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과거의 가부장적인 봉건적인 측면에서의 가정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러한 기능을 소생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지역사회에서 문화원이 바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종합토론

Q 정재균(안성):지역 문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문화원 활동에 간접적으로는 참여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참여기회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지역문화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하신 홍사중 선생께서 답변해 주기 바란다.

A 홍사중:문화원의 원장이나 사무국장은 문화의 촉매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술 행정가는 문화창작을 하는 예술인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사례는 외국에도 별로 없다. 나는 문화 예술 촉매자와 예술인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지역의 모든 문화 예술을 아우를 수 있는 문화 행정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촉매역할을 해야 되고 예술인들은 그런 촉매자와의 유대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Q 고경재(양양문화원장):오수길 고양문화원장의 토론 내용을 이원태 연구위원께서 잘못 이해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들의 공개채용과 급료까지도 획기적으로 책정해 준 것은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 대체재원이 문화원 고유의 중요사업인 향토문화 개발 보존 전승을 위한 향토문화사료조사비를 삭감을 해서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 문화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전국의 지방문화원 실태를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문화원장직은 상징적인 자리로 보고 사업실무는 사무국장이 한다고 했는데 표면적으로는 맞다. 그러나 문화원장들이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해 오신 분들이고 지방문화원의 사업주도는 원장이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문화정책을 수립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지적한다.

A 이원태:지난 해에 문광부가 목적사업비를 사무국장 인건비로 전용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그로 인해 담당직원은 문책을 당했다. 앞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재원확충계획과 관련해서 문화원지원정책을 새로 고민을 해 보겠다. 내가 문화부의 문화정책 팀장 역할을 맡고 있지만 나 혼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문화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모자라는 부분은 계속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란다. 평가업무는 법체계가 개정이 되고 바뀌어지면 그 핵심은 여전히 지방문화원의 정통성을 인정받을 것이고 사업확대 과정에서 정리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원장님들도 그런 쪽에서 목소리를 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Q **예총 수원지부 사무국장:**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예술단체와 지역예술인들의 역할과 활동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 그들을 대표하는 문화원과 예총, 민예총의 활동이 중요하다. 그런데 문화원의 역할이 지역문화계승이라는 전제하에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고 보완해 주고 도와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할 터인데 수원의 경우 문화원이 예총의 업무영역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이 저조하거나 상대적으로 약한 문화예술단체는 경쟁력을 잃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보며 앞으로 문화원이 나가야 될 역할에 대해서 최정학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기 바란다.

A **최정학:** 우리 지역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문화예술단체의 단위 단위가 자신의 고유한 자기 정체성과 지역문화진흥에 대한 비전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지역문화진흥이라는 것은 중앙의 문화진흥보다 어렵다.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표현의 기회들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예총과 민예총의 기능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문화원은 공간과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센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역의 큰 행사를 할 때에는 컨소시엄을 이루는 것도 좋겠는데 각종 행사에 있어서 서로의 색깔이 있고 다양한 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로 같이 간다는 것은 또 다양성과의 문제가 되어서 어쨌든 함께 짊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



사회

윤병로: 오늘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한 문화분권과 지역문화진흥 대토론회에 발제를 해 주신 네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토론에 참가한 여덟 분 모두 진지하고 내실 있는 말씀들을 해주셨다. 참여시대의 정부에 들어와서 지방분권이니 자율이니 참여라는 좋은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은 직접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문화원이 지역의 문화센터가 되어서 구심점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할 터인데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적인 공간, 재정적인 문제, 또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그러한 중추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자성적인 목소리도 많았다. 문화원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말씀과 우리 문화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이것은 동시에 정부나 사회 각 계층의 지원하에서 육성 발전되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타진했다. 여러 가지 전략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래서 전국의 문화원이 새롭게 거듭나면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함께 실어서 박수로 마감할까 한다.(일동박수)



소쇄원

한국의 정원(庭園)

한국의 정원은 그 성격으로 보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즉 궁원(宮苑)이라고 불리는 궁궐의 정원
과 관아(官衙)의 정원인 관원(官苑)
그리고 민간의 정원인 사원(私苑)과
사찰의 정원인 사찰원(寺刹苑)이 그
것이다. 이 정원들은 각기 그 성격을
달리 할 뿐만 아니라 규모나 꾸밈새
또한 다르다.



장영복(칠곡문화원장)

우리의 빛나는 문화전통은 조선시대(朝鮮時代)를 종막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단절되고 각종 외래양식이 뒤범벅이 된 가운데 혼란과 퇴폐를 거듭하여 왔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자신의 참모습들이 잊혀져가고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아까운 것이 있다면 정원양식을 들 수 있다.

조상들이 남긴 전통공간의 미를 추구하고 그것에 담겨져 있는 열과 기법을 오늘에 되살려 이것을 자손들에게 물려 주어야하는 마당에 옛 정원양식과 심어야 할 나무의 종류는 다 잃어버리고 우리식 정원의 전통들은 끊겨져 버렸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정원은 일제 강점기에 배운 일본식 정원을 으뜸으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정원은 그 성격으로 보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즉 궁원(宮苑)이라고 불리는 궁궐의 정원과 관아(官衙)의 정원인 관원(官苑) 그리고 민간의 정원인 사원(私苑)과 사찰의 정원인 사찰원(寺刹苑)이 그것이다. 이 정원들은 각기 그 성격을 달리 할 뿐만 아니라 규모나 꾸밈새 또한 다르다.

궁궐의 정원으로는「규원사화(揆園史話)」에 단군이 나라를 세우고 궁궐을 지으면서 궁궐 안에 버드나무를 심었다고 기록된 것을 보면 정원의 역사는 고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東明聖王)은 기원년 경에 을밀대(乙密臺) 위에 구계궁(九梯宮)에 청운(靑雲)-백운(白雲)-통한(通漢)-연우(延祐)의 4개의 교량으로 궁원을 꾸몄다고 한다.



삼국 중에 가장 정원기술이 발달되었던 나라가 백제다. 이미 제12대 진사왕(辰斯王 391)이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궁을 중수하면서 연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기이한 새를 기르고 꽃을 심었다는 기록은 규모나 화려함 또한 대단한 것이었다.

그 당시 이미 사비성궁이 화려하게 꾸며 있었으며 제24대 동성왕 2년(東城王 500) 봄 공주로 환도하여 궁 동쪽에 높이가 다섯 길이나 되는 임류각(臨流閣)이란 다락을 짓고 연못을 파고 기이한 새들을 길렀다.

신라는 시조 박혁거세왕 때 쌓은 금성(金城)터에 연못자리로 보이는 웅덩이가 남아있고, 제5대 파사왕(婆娑王 80~112)때 축조된 월성궁(月城宮)에는 실개천을 이끌어 구곡(九曲)의 경치를 베풀었으며 제30대 문무왕 14년(文武王 674)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룬 뒤 안압지(雁鴨池)를 파고 돌레를 돌로 쌓아서 무산십이봉(巫山十二峯)을 본떴다하니 부여의 백제궁을 직접보고 정원방식을 도입한 것 인지도 모른다.

포석정(鮑石亭)의 조성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궁원에 설치한 굽이굽이 흐르는 물에 술잔을

경복궁 후원은 비교적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옛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정원은 창덕, 창경 두 궁의 후원으로 꾸며진 것으로서 총 면적 6만 2천평에 이르는 한국 최대의 정원으로 자연 그대로의 지형을 가진 숲속 곳곳에 연못을 파고 누각과 정자 그리고 당(堂)을 그 주변에 꾸며 놓았다. 연못의 형태는 조선시대에 크게 성행했던 네모난 생김새에 소위 방지(方池)이다.

띄우고 시가를 읊으며 놀이하는 장소이다. 포석정은 경주 남산 석천(石川) 계곡가에 남아 있는데 석구(石構)의 긴축은 10.3m이고 가운데 폭은 4.9m로 63개의 부재로 짜여 있으며 둥근 물받이에 서 배수 부분까지 40cm 차이가 있다.

고려의 정원은 제16대 예종 8년(睿宗 1113) 서경(平壤)과 남경(漢城)에 정원을 꾸미고 누각(樓閣)과 담장을 높이 쌓고 민가의 화초를 거두어 옮겨 심었다. 그리고 송(宋)나라 상인들에게 꽃나물을 사들여 심은 기록이 있다. 또한 궁궐 안에 청연각을 지어 그 앞에 돌을 쌓아 석가산(石假山)을 꾸미고 물을 끌어들여 연못을 만들었다고 한다. 남경리궁(南京離宮)은 지금의 청와대 자리다.

제18대 의종 11년(毅宗 1157)에 수덕궁(壽德宮)을 짓는데 양이정(養貽亭)을 청기와로 이었으며, 동 19년(1165)에 중미정(衆美亭)을 지을 때는 앞 계곡을 막아서 못을 이루었고 오리, 기러기, 갈대 따위의 풍치가 마치 자연의 호수 같았다고 한다. 개성 동쪽의 용연사(龍淵寺) 남쪽 냇가에 기암절벽이 있으며 이를 호암(虎岩)이라 이름 붙이고 숲이 우거져 울창하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연복정(延福亭)을 짓고 그 주위에 기이한 꽃과 나무를 심었다. 여러 신하의 집을 별궁으로 하고 민가 50여 호를 헐어 대평정(大平亭)을 짓고 꽃과 과일 나무를 심고 진귀한 장식품을 조화 있게 배치하였다. 대평정 남쪽에 못을 파고 정자를 짓고 주위에 돌을 모아 선산(仙山)을 만들고 먼 곳에서 물을 끌어 들여 폭포가 되게 하였다. 이러한 기록을 보면 고려의 궁원은 실로 감탄할 만큼 화려하고 운치가 있었다.

조선 왕조의 수도 한성(漢城)은 고려의 별궁이 있었으며 경복궁은 태조 3년(太祖 1395) 12월에 시공하여 태조 4년 9월에 완공하였다. 태조 12년(1412)에는 서쪽에 경회루(慶會樓)를 짓고 주위에 큰못을 팠다.



경복궁 후원은 비교적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옛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정원은 창덕, 창경 두 궁의 후원으로 꾸며진 것으로서 총면적 6만 2천평에 이르는 한국 최대의 정원으로 자연 그대로의 지형을 가진 숲속 곳곳에 연못을 파고 누각과 정자 그리고 당(堂)을 그 주변에 꾸며 놓았다. 연못의 형태는 조선시대에 크게 성행했던 네모난 생김새에 소위 방지(方池)이다.

창덕궁 후원은 부용지(芙蓉池)를 중심으로 한 공간과 애연지(愛蓮池) 및 연경당(演慶堂)을 중심으로 한 공간으로 나누고, 반도지(半島池)와 반월지(半月池)에 의해 구성되는 공간 및 최북단의 옥류천(玉流川) 공간의 네 공간에 의해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경복궁의 후원으로 큰 방지(方池) 속에 2층 누각이 자리하고 있는 경회루어원(慶會樓御苑)이다. 이곳은 원래 외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꾸며진 곳이라고 한다. 또 하나는 국립박물관 서쪽에 위치한 향원지(香遠池)와 그 동북쪽으로 이어지는 녹산(鹿山)을 중심으로 한 후원이다.

이상 소개한 궁궐정원이 소위 정궁(正宮)에 후원들이다. 궁원이 이러한 과정을 밟아 발달하는 동안에 관아(官衙)에서는 관원(官苑)이 사찰(寺刹)에는 사원(寺苑)이 민가(民家)에는 사원(私苑)이 생겨났다.

관원(官苑)은 고려 말엽으로부터 조선시대에 관아(官衙)에서 꾸며 관리하던 정원이다. 조선시대의 육조(六曹)는 이조(吏曹)-호조(戶曹)-예조(禮曹)-병조(兵曹)-형

조(刑曹)-공조(工曹)로서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앞, 즉 지금의 세종로 좌우에 자리잡고 있었다. 호조전도(戶曹全圖)에 의하면 호조본가건물 뒤쪽에 크고 작은 방지를 중심으로 하여 그 주위에 정자와 당(堂)이 앉혀진 간소한 정원이 꾸며져 있었음을 알게 된다.

지방관가의 정원은 관찰사(觀察使)나 목사(牧使), 도호부사(都護府使), 군수(郡守), 현감(縣監) 등의 직책을 맡은이들에 의해 꾸며진 것이다. 여기에는 객사(客舍)와 동헌(東軒) 주위에 꾸며진 정원 연못에는 연이 심어졌을 뿐만 아니라 갖가지 꽃나무도 가꾸어 어명(御命)을 받들어 내려오는 중앙관원을 접대하고 위로하는 자리로서 요긴하게 쓰여진 곳이다. 지금도 그 위용을 자랑하는 밀양(密陽)의 영남루(嶺南樓)도 객사 동편에 지어졌던 누각이다.

지방관가에서는 객사와 동헌의 정원 이외에 누각(樓閣)이나 정자(亭子)를 지어 자연을 관상하고 시(詩)를 짓는 풍류를 즐기는 곳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원으로는 울산(蔚山)의 태화(太和) 강변에 세워진 태화루(太和樓), 영해(寧海)의 해구에 자리잡은 봉송정(奉松亭), 강화의 갑곶(甲串)에 있던 이섭정(利涉亭) 등을 들 수 있다.

원형 그대로 남은 관원(官苑)으로는 남원(南原) 광한루(廣寒樓)가 있다. 원래는 황희(黃喜)가 광통루(廣通樓)라는 자그마한 다락을 지어 산수를 즐기던 곳인데 남원부사(南原府使) 민여공(閔汝恭)이 1434년 새로 누각을 지어 정인지(鄭麟趾)가 광한루라 이름을 새로 붙였다. 그후 정유왜란(丁酉倭亂)때 불탔고 정철(鄭澈)이 전라관찰사로 있던 1582년에 연못과 함께 정원이 꾸며졌다.

사찰원(寺刹苑)은 대체로 도성안에 자리잡은 대가람(大伽藍) 즉 신라의 영묘사(靈妙寺), 황룡사(皇龍寺), 사천왕사(四天王寺) 고려의 연복사(演福寺), 왕륜사(王輪寺), 관란사(觀瀾寺) 조선의 흥천사(興天寺), 원각사(圓覺寺) 등에는 궁원을

방불할만한 화려한 정원이 꾸며졌으며 산사에서는 조촐하기 이를 때 없는 소탈한 정원이 꾸며졌던 것으로 각종 자료가 전해주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오랜 역사를 가진 사찰에 꾸민 연못의 돌쌓기나 심어진 나무의 종류, 다듬어 놓은 나무모양은 일본식으로 꾸민 정원이 대부분이고 그것이 전통 정원으로 잘못 전해져 오고 있다.

민가(民家)의 정원인 사원(私苑)의 시조는 신라시대 사절유택(四節遊宅)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사절유택은 봄 동아택(東野宅), 여름 곡량택(谷良宅), 가을 구지택(仇知宅), 겨울 가이택(加伊宅)을 순회하면서, 정원놀이를 즐겼는데 동국여지승람에는 그때 정원놀이에 참가한 민가정원의 수효가 35가구에 이른다고 하였다. 따라서 궁궐안 뿐만 아니라 사대부(士大夫)의 구조가 큰집에 있어서도 안채 뒤에는 으레 정원이 자리잡게 마련이다.

오늘날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사원(私苑)으로는 소쇄원(瀟灑園), 세연정(洗然

亭), 도산서원(陶山書院) 등이 있다.

양산보(梁山甫)의 별서(別墅)인 소쇄원(瀟灑園)이 전남 담양군 남면 화곡리에 무등산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리는 작은 냇가에 아름다운 한 대목을 터잡아 아담한 정원의 담장을 돌리고 약 1500평에 베풀어져 있다. 조선후기 사대부별서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동에서 서로 급하게 흘러내리는 시내 양쪽에 아름답게 꾸며졌으며 남으로는 마을에 인접하고 북은 산을 등지고 있다.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산에서 흘러내려 자연 암반으로 구성된 변화 많은 굴곡을 이루어 흐르고 있다. 소쇄원이 베풀어진 시내의 길이는 100m쯤 이다. 물은 언제나 수정처럼 맑고 시냇물에 씻긴 수석도 깨끗했다.

전남 완도군 보길도(浦吉島) 부용동(芙蓉洞)에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가 1637년 별서(別墅)를 조성한 것은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이다. 보길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부용동이라 이름하고 낙서재(樂書齋)란 거처를 마련하고 계곡 좌우에 25



28년만에 선보인 창덕궁 후원

5월 1일부터 일반에 공개되는 창덕궁 후원의 존덕정. ‘덕성을 높인다’는 뜻의 이 육각정자는 국왕이 책을 읽고 수양하는 공간이었다. 이번 공개조치로 임금과 신하가 물위에 술잔을 띄우고 시를 짓던 창덕궁 후원 최북단의 옥류전까지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게 됐다. 한국 정원미의 전형으로 꼽히는 창덕궁 후원은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출처:동아일보>

개 정자를 배치한 흔적이 남아 있다. 원형 가깝게 남은 세연정(洗然亭)에 갈때는 곡수대(曲水臺)의 뒤를 돌아서 정성암(靜成庵)에서 휴식하고 세연정에 이르면 곁에 자제(子弟)들로 하여금 심부름을 하게 하고 여자(女子)들을 즐기어 세워놓고 작은 배를 못속에 띄우고 남녀들의 찬란한 옷의 자태가 수중에 아름답게 일렁이는 것을 보고 고산이 지은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를 노래부르게 하였다.

도산서원(陶山書院)은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도계동에 있는 조선시대 대학자 퇴계(退溪) 이황(李滉) 선생이 학문을 닦고, 후학을 길러 경륜을 펴내신 곳이다. 조선시대 선비가 거쳐하던 택지에 있어서 풍수지리설에 알맞은 경관을 가진 당사 동쪽 구석에 조그마한 못을 파고 거기에 연(蓮)을 심어 정우당(淨友塘)이라 하고 또 그 동쪽에 몽천(蒙泉)이란 샘을 만들고 샘 위에 산기슭을 파서 추녀와 맞대고 평

평하게 쌓아 단을 만들었다. 그 위에 매화(梅花) 대나무(竹) 소나무(松) 국화(菊)를 심어 절우사(節友社)라 하였다. 이제는 도산서당 건물 동남에 정우당의 연못만이 남아있고 몽천과 절우사는 유실되어 없어졌다.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은 조용하고 그윽한 경지를 정원에서 가꾸고 정원에서 찾았다. 이점에서 조선시대의 민가의 정원은 고려시대 사원(私苑)의 전통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정원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원을 꾸미던 우리 조상들의 태도는 아득히 먼 옛날부터 우리 겨레가 이 땅의 산천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에 체득한 생활철학의 표현이며, 그것이 전통의 단절과 더불어 깨뜨려졌을 때 우리들에게는 전통 정원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게 되었다.

한국의 전통정원을 궁궐의 정원, 관아의 정원, 사찰의 정원 및 민가의 정원에서 살펴보면

첫째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한 모습이다. 산은 비탈지고 물은 흐르게 마련이다. 비탈진 적당한 공간에 집을 짓고 흐르는 물줄기도 그대로 손질을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정원을 꾸민 것이 전통이고 우리의 정원이다.

둘째

정원에 석물(石物) 등 장식물이 적다는 점이다. 일본식은 석등, 거북이나 학 모양의 석물(石物)외에 많은 장식물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있는 돌을 그대로 두고 약간의 장식물만 배치하였다.

셋째

심은 나무는 생명을 존중하여 다듬지 않고 자생하는 그대로 둔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생하는 나무 위주로 선택하여 가꾸지만 사철나무나 향나무 등을 심어 깎아 다듬고 울타리로 심은 나무까지 손질하는 정원은 일본식이다.

넷째

심은 나무의 종류는 낙엽수였으며, 그 중에도 열매가 맺는 나무를 많이 심었다. 산수유, 석류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모과나무, 배나무, 앵두, 백철쭉, 옥매화 등 대부분이 낙엽수로 열매가 맺는 나무를 많이 심었고, 꽃으로는 봉숭화, 국화, 목련, 작약, 무궁화 따위를 심었다.

다섯째

나무를 심더라도 실용적인 면을 생각하여 심었다. 후원의 울타리로 대나무를 심어 호랑이, 늑대 같은 맹수를 막았고, 겨울철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 구실도 했으며 바구니, 빗자루, 삿갓, 부채 같은 용구의 재료와 건축 자재로도 쓰였다.

여섯째

돌은 일정한 크기로 다듬어서 사용하였다. 원형 그대로 남은 궁원 연못이나 그 밖의 석축(石築)은 대부분 일정한 크기와 적당한 모양으로 다듬어서 쌓았다. 일본식 정원은 연못이나 정원 둘레에 자연석을 높히거나 세워서 쌓고 회양나무, 철쭉 등을 돌 사이에 심었다.

게다가 같은 나무라도 한국산과 일본산이 다르고, 심는 장소에 따라 엄격하게 나무의 종류를 가리는 것이 우리네 옛 격식이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찰에도 일본식 정원의 전형적인 모습인 회양나무를 심어 왔다. 이 나무보다 작약이나 목단을 심으면 6월은 탐스런 꽃을 보고, 여름에는 윤기 흐르는 잎을 즐기며, 뿌리는 한약재로 이용하게 되니 역사 깊은 사찰에 어울리는 정취마저 갖 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울곡(栗谷)의 생가에 외국산 나무인「희마라야시다」를 심는 것 보다 울곡의 전설에 등장하는「나도밤나무」를 심는 것이 전통 정원 계승으로 울곡 사상에 어우러지지 않을까?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궁궐 후원에 일본식인 거북이나 학 모양의 석물이 남아있으니 이것 역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우리는 집을 지을 때에도 주변의 돌 하나 나무 한 그루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로 자연을 최대한 살리고, 산천을 더듬어서 그중 아름다운 한 자리를 골라 거기에 정원을 꾸미고 수석을 손질하는 정도로 결코 자연의 아름다움을 깨뜨리거나 인공적으로 조작하는 따위가 아닌, 그리하여 그 속에서 조용히 자연을 즐기면서 지내자는 조상의 풍요로움으로 세계속에 우리 것이 부각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조상들의 정취를 되찾는데 다시 한번 뒤돌아볼 때이다. 

그리던 시절은 떠나가버리고 ...

詩. 장 윤 우

그립고 그리던 시절은 멀리 가버리고
꺾여 짜고 또 꺾어짜도
흙탕인 머릿속은 더욱 갈증만 난다
가슴을 치고 발버둥쳐도
어찌지 못하는 지금의 “나”
지금 이렇다면 어제의 어제는 어디에 서 있었던가
그렇게 기름지고, 아름답고,
잘 나가던 好時節은 모두 놓쳐버렸다
그렇다면, 사나이들의 悔恨과 아픔과
무지개빛 행복을 謳歌하던
그 시대 멋진 시인들의 모습은 차라리 외면하라
등도 굽고, 축쳐진 모습이
낡은 액자속으로 긴 그림자를 흘릴 때,
차라리 비웃음은
슬픈 毒酒盞에 타서 마셔버리자꾸나.



장윤우

서울대학교 미술대. 同대학원졸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박물관장, 대학원장. 산업미술연구소장 역임)
현재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월간문학발행인
현재 문광부 산하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이사장
시집/“겨울동양화”, “화가 슬픈 城主의 손”, “세번의 鐘” 등 11권.
국민훈장 황조근정훈장 받음.
서울시문화상(미술). 예총 예술문화대상

지역문화 네트워크



대전광역시지회장 한근수 씨

대전광역시지회는 3월 19일 정기총회에서 제6대 지회장 선거에 두 분이 입후보한 가운데 경선을 통해 한근수(韓近洙) 유성문화원장이 선임되었다. 4월 20일 전임 류해상 지회장과 이취임식을 가진 바 있는 한 지회장은 그동안 대전공연예술연구회장과 (주)대전모델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후원에 힘써 오고 있다.



충청북도지회장 박영수 씨

충청북도지회는 3월 4일 정기총회에서 박영수(朴永洙) 현 지회장을 전원일치로 유임키로 결의하여 제8대 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평생을 교단과 대학의 출판·홍보 사업에 종사해 온 박 지회장은 청주문화원장으로 있으면서 청주대 평생교육원 수필창장반을 지도하고 있다.



전라북도지회장 이복웅 씨

전라북도지회는 3월 25일 정기총회에서 전임 김병학 지회장의 사퇴에 따라 신임 지회장에 이복웅(李福雄) 군산문화원장을 전원일치로 선임하였다. 이 지회장은 한국현대시인협회 감사와 국제펜클럽 이사를 비롯해서 채만식문학상운영위원장, 최호장군추모제전위원장, 옥구농민항일항쟁기념행사추진위원장 등 많은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우리문화 구독 · 광고 문의

02) 704-2311



마산문화원장 임영주 씨

마산문화원은 3월 25일 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4명의 후보가 경선을 한 가운데 임영주(林永柱)씨가 선임되었다. 1952년생인 임 원장은 마산문화원 이사과 부원장을 역임했으며 대한논리속독학회 이사장을 거쳐 한국학원총연합회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예천문화원장 권대균 씨

예천문화원은 전임 백병구 원장의 사퇴로 2월 26일 정기총회에서 신임 원장에 권대균(權大均)씨를 만장일치로 추대하였다. 라이온즈클럽 예천지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권 원장은 1948년 생으로 오랫동안 부원장 직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는 예천한일신용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영천문화원장 김종대 씨

영천문화원은 3월 18일 제35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원장에 김종대(金鍾大)씨를 만장일치로 추대하였다. 김 원장은 1939년 생으로 영남대를 졸업하고 영천군 체육회 부회장과 새마을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영신도정공장, 신성사 대표와 화산장학회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문화원 부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김제문화원장 정주현 씨

김제문화원은 3월 15일 정기총회에서 신임 원장에 정주현(鄭註鉉)씨를 만장일치로 선임하였다. 정 원장은 1935년 생으로서 원광대 법과를 졸업하고 6대에 걸쳐 전북농약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역임하였으며 그동안 문화원 부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포천문화원장 이만구 씨

포천문화원은 3월 26일 임시총회에서 두 분이 원장에 입후보한 가운데 경선에 의해 이만구(李晩九)씨가 신임 원장으로 선임되어 4월 6일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이 원장은 1939년 생으로서 성균관대 사진학과를 수료하고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포천군 기획감사실장을 역임하였으며 그동안 부원장으로 문화원 발전에 기여해 왔다.



여주문화원장 원용문 씨

여주문화원은 1월 28일 정기총회에서 제8대 원장으로 원용문(元容文)씨를 만장일치로 추대하였다. 1938년 생인 원 원장은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교육대학원(문학박사)을 수료한 후 경상대와 한국교원대에서 수석 교수 및 대학장, 한국시조학회 제7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교육계와 문단 및 학회에서 많은 활동을 해 왔으며, 윤선도 문학연구를 비롯해서 가람시조연구 등 많은 저서와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우

소식

달성문화원 이전

(우)711-873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상리 627
Tel : 053) 611-0010 Fax : 053)616-4798
E-mail : dalmun85@yahoo.co.kr





어제도 하로밤 나그네 집에
가마귀 가왯가왯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죽장짚고 망혜 신어 1,000회 국토 답사



신정일(전주황토현문화연구소장)

어제도 하로밤 나그네 집에 가마귀 가왯가왯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나그네 삶이요 걷는 것이 우리네 삶이라지만 신정일(50) 전주 황토현문화연구소장의 떠남은 때론 정처없기도 하거니와, 어머니 땅의 설움과 몸뚱어리를 소생시키고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걸음을 무던히도 걷는다. 1985년 연구소를 발족한 이래 향토 문화 지킴이로서 있는 신정일. 그의 두 발에는 남녘의 흙내음이 그득하다. 선현이 말하기를 ‘즉시현금 갱무시절(卽時現今 更無時節)’이라 하였다. 바로 지금이 그 때이지 다시 시절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하였다. 신정일 소장이 즐겨 찾는 문구이다. 그는 실증주의자이며 현재를 중요시한다. 그리고 국토 답사를 하다가 만나는 무수한 풍경들 역사적 사실들 사념들을 그 자리에 선

채로 완성된 문장으로 기록한다. 지금이 가고 나면 더 이상 지금의 기록이 아닌 것. 그런 기록들의 축적으로 향토사가 생기를 찾고 꿈틀거리고 있다.

치열한 황토재 일을 이어받아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황토현문화연구소의 이름에는 봉건 사회 아래 억압받는 민중의 울분과 승리의 핏빛 함성이 스며있으니 정읍 황토현은 1894년 5월 동학농민군이 관군에 맞서 대승을 거둔 곳으로 익히 알고 있다. 녹두장군과 연합한 최경선 김개남 손화중 이방언 등은 황토재에서 전라도 감영군을 격파하고 정읍 고창 무장 영광 법성포 함평을 석권하여 그 기세로 나아가 전주를 점령한다.

동학농민군이 시대의 변혁을 원했던 것처럼 신정일 그도 문화운동을 통해 변혁을 일으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 80년대 5명의 동지가 일심하여 일으켰던 황토현문화연구소는 김개남 건원정여립과 같은 시대의 패자로 남겨진 역사 인물을 재조명하고 문화유적 답사와, 정월대보름놀이 화전놀이 단오제 등의 세시풍속 보존사업을 연중 시행해 왔다. 또 일제시대 잘못 붙여진 이름을 우리말로 바로잡기 위해 ‘아름다운 우리 말 이름과 옛 지명찾기’ 운동도 벌였다. 그는 전주 관광안내

였다. 땅을 밟을수록 사랑의 농도는 더 짙어간다. 지국이 응시하면 보이는 것은 선인이 살았던 모양새에서 확연히 변한 국토이지만 시멘트로 차단된, 그들이 걸었을 길 위로 선인의 숨결이 들리는 듯하다.

신 소장이 지난 1989년부터 이끌어온 답사 프로그램 ‘남녘기행’은 금년 5월이면 150회 답사에 이른다. 휴전선 이남부터 해남 땅끝마을까지 연구소 회원 및 시민들과 함께 거의 한 달에 한번 꼴로 답사를 다녀왔다. 또 2000년부터 시작한



전라세시풍속보존회원들.
정월대보름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



이천 영산. 최시형이 운운했던 산에서 묵념
(제일 왼쪽이 시인 김지하, 그 옆이 신정일)

지도에서 녹두길이라는 지명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우리말로 바뀔 예라고 설명한다. 2천여 개가 고유의 이름을 찾았다고 한다. 신 소장은 암을 했던 5공시절 동학을 조직적인 운동으로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물로 연구소 인근의 덕진공원에 가 보면 김개남 추모비와 전봉준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처음 5명의 동지들은 뽕뽕이 흩어지고 지금은 시인 김관용 씨가 그와 함께 한다.

5천리 물길에 ‘느닷없이’ 만나는 신세계

신 소장은 “뜬금없이, 느닷없이 라는 말을 좋아한다”라며 길 위에서 만나는 많은 것들로 인해 세상을 배우고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고 말한다. 그는 남녘 곳곳을 걸으면서 ‘처연토록 아름다운 우리 국토’를 만났고 이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

‘우리 강 따라 걷기’를 통해 남한 7개 강의 발원에서 하구까지 5천리를 족히 걸었다. 금강 섬진강 한강 낙동강 영산강 만경강 동진강. 2000년 9월 금강 1천리를 따라 걸은 14일간의 여정과 2001년 2월 9일간 걸은 섬진강 530리, 같은해 8월과 9월 16일간의 한강 1천300리, 같은해 9월 13일간의 낙동강 1천300리 등은 그 답사기록을 책으로도 펴냈다. 그의 발과 손이 꿈틀거리며 만든 실증서랄까. 강을 따라 흐르는 인심 풍속 역사적 사실 등을 기록한 인문지리서다.

그의 도보 답사는 동행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홀로 걸을 때면 철저한 고독과 자연에 침잠하게 된다. 유령처럼 꾸물거리는 강의 움직임이 그에게 말을 걸 뿐이다. 아침부터 걷다보면 오후 2,3시가 고비. 다리가 너무 아파 끊

어질 것 같고 감각이 무디어지는데 그만 걷고 싶다. 일행들이 있을 때면 서로 싸우거나 한 것처럼 말이 없어지고 얼굴이 굳어진다. 1시간 걷고 10분 쉬어 간다.

“강이 좋아요. 세파엘랑은 상관없이 도도하고 유유히 흐르는 저 강물을 보면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애처롭고 어지러워요.” 산을 답사한 선인들은 있어도 물길을 따라 답사한 이는



없던 것 같아 강 따라 걷기를 감행한 그는 물길을 따라 걷다보면 개발로 인해 물길이 틀어지고 막히고 오염된 현장을 만나게 돼 자연 인상이 지푸러진다. 청청하여 뽕얀 처녀 얼굴이 비치이던 그 물은 어디로 갔느냐란 말이 나온다.

부절히 움직인다는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이 흰구름을 지니고 살 듯/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짧은 산맥으로 삼고/부절히 움직인다는 지구를 밟았거니.//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나./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저문 들길에서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푸른 별을 바라보는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거니.(신석정의 ‘들길에 서서’)

신석정이 그의 시에서 ‘하늘을 향하고 산삼처럼

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나’라고 했던 것처럼 신정일의 향토를 걷는 일이 곧 숭고한 일이라. 지난 20여년 동안 1천 차례 국토를 밟은 그는 연구소에서 기획한 답사가 아니어도 주말이면 으레 답사를 떠나는 것이 몸에 배었다. 죽장 짙고 망혜 신어 천리 강산을 누비는 그의 답사 길은 외롭고 쓸쓸하며 자본주의 사회에 역행하는 길이건만 걷다보니 한 겹 두 겹 쌓여가는 취재수첩이 책으로 변모한 것도 나름대로 큰 성과다.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란 시에서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고, 그것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한 것은 바로 신정일 그를 두고 한 말인 듯.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갔더니 과거와 현대를 잇고 현대인이 잇고 사는 국토를 증거하는 숭고한 일이 된 것이다. 최근 그가 펴낸 ‘다시 쓰는 택리지’는 그동안의 답사기를 총망라한 결정체라 할 수 있다. 250년 전 이증환이 쓴 ‘택리지’의 형태를 따라서 팔도총론과 지리 생리 인심 산수를 밝혀 쓴 북거총론 총 5권이며 북거총론 2권은 5월중으로 발간된다. “유배당하자 이 산 저 산을 떠돌던 이증환의 시대보다 더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글을 썼으니 편리하고 분량도 많아요. 사실 8도를 세 권에 담는다는 것은 무리요. 하나의 도를 한 권씩 써야 될 거요.”

그는 4.15 총선 이후 각 10여일 여정으로 걷기 시작하는 영남대로와 삼남대로를 비롯해 아름다운 길을 ‘조국순례보도’로 지정하고 남한 5대강을 다도해나 태안반도처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거나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곧 압록강 대동강을 걸을 예정인 그는 북으로의 문이 트이면 제일 먼저 북녘의 강을 보고 싶단다. **우** <박지혜 기자>

5대째 화살통 제작 기마민족의 혼 담아



김동학 전통(箭筒)장



“오히려 외국사람들이 우리것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아요.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전통공예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 국민이 관심을 갖도록 홍보하고 상품이 되도록 전략을 짜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는 우리나라 전통 목재 가구는 그 속에 100년 동안 옷을 보관해 두어도 옷에 문제가 안 생기며 유기 방자는 세균이 엄습하지 못하며 건강에도 유익하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고 덧붙인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을 하겠소’ 라면서도 김동학(73·중요무형문화재93호·사단법인 한국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이사장)씨는 우리 전통이 뿌리 뽑혀 주체 없는 민족문화를 후대에 남길까봐 겁이 난다. 오다 보니 왔다는 그의 길 위에 서서 전통을 푸대접하는 정부 정책에 한숨짓고 외국 것이라면 값도 안 따진다는 국민에 속이 탄다. 나라님들을 설득시키려도 배움이 짧아 힘도 없다는 그라지만 나무와 벚삼은 한평생 나무를 매만지는 일이 나라를 위한 도리임에 이제저제나 대나무 통 부여잡는다.

우리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지난 7,80년대에는 그래도 전통공예품을 소장하기 위해 구입하고 관심 쏟는 이들이 더러 있었소. 그런데 우리사회가 점차 물질주의 모양새를 띠면서 재산 쌓기에만 빠져버리고 고유한 정신을 계승하는 데에는 무관심한 것 같아 안타깝소.”

김동학 이사장은 지난해 5월부터 협회 이사장직을 역임하면서 전통공예 계승과 발전에 대한 정부 정책의 부재를 통감하며 민족문화의 미래를 걱정하게 됐다. “이미 단절된 전통공예도 있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무형문화재도 정부와 국민의 무관심과 홀대로 언제 사장될지 모를 일이지요. 한데 뿌리가 없으면 어디로 가겠소.” 그는 정부가 전통을 살리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전통과 현대 간에 조화로움도 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오히려 외국사람들이 우리것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아요.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전통공예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 국민이 관심을 갖도록 홍보하고 상품이 되도록 전략을 짜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는 우리나라 전통 목재 가구는 그 속에 100년 동안 옷을 보관해 두어도 옷에 문제가 안 생기며 유기 방자는 세균이 엄습하지 못하며 건강에도 유익하다는 과학적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고 덧붙인다.

‘화살 전’에 ‘대롱 통’字

전통장을 본업으로 삼던 김 이사장은 1989년도에 무형문화재로 인정받았다. “전통이란 화살 전(箭) 자에 대롱 통(筒) 자를 써서 화살통이란 말이요.” 요즘은 활 쓸 일이 없으니 화살과 붙어 다니던 화살통도 찾아보기 드물다. 그러나 고구려 쌍영총의 수렵도, 고려 천산대렵도와 같은 고분벽화에서 혹은 역사물을 다루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민족은 활을 잘 다루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신석기시대부터 활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마민족으로서 말과 활을 잘 다루기로 이름나 있다.

“고대에는 어디 오늘날과 같았겠소. 땅을 노략질하기 위해 그리고 방어하기 위해 싸움이 잦았겠지요. 그리고 수렵 생활을 위해서 활은 주요한 무기이자 생필품이었을 거요.” 김동학이 그때에만 태어났어도 어깨 덩실거리며 화살통을 만들었을까도 모를 일. 그러나 화약과 총포의 등장으로 활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화살통 만들던 이들도 하나둘씩 사라져 갔다. 지금은 모두 없고 김동학 그 홀로 남았다.



활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활과 화살과 화살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화살통이다. 조선시대에는 화살통의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전쟁용이며 다른 하나는 운동삼아 취미로 활을 쏘는 데 쓰던 화살통이다. 전쟁용은 길이가 50cm 가량 되고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살을 빨리 빼내어 쏘야 하기 때문에 뚜껑이 없다. 그리고 취미용은 전쟁용보다 두 배 가량 길이가 길고 뚜껑이 있다. 취미용은 전쟁용보다 문양이 더 화려하고 장식과 그림을 넣어 전시효과도 있으며 장인의 기교가 더 많이 담긴다. 오늘날에 제작되는 것은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에서 취미용으로 쓰던 형태가 전수된 것으로서 호사스럽다. 대체로 대나무를 재료로 쓰지만 오동나무, 거북딱지, 빛나무 껍데기, 어피 등 다양한 나무와 재료를 쓸 수 있다.

“아직도 그냥 보기만 해서는 좋은 대나무를 잘 몰라요. 특히 요즘이나 가을 같은 건조기에는 만드는 과정에서 잘 터지는 성질이 있어서 애를 먹어요. 어찌겠소,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어떤 공예품이든 그러하듯 전통도 손과 정성이 많이 간다. 2년 이상 땅속에 묻어두어 절을 삭히고 기름을 빼고 삶아 겉을 다듬고 조각하는 통 제작 과정에서 그는 한 순간도 숨 놓을 틈 없고 해 지는 틈 모르게 오직 그것만 생각한다. 문양을 새길 때 그 섬세한 펄림은 지나가던 새도 숨을 멎기에 족하다. 점심 밥상을 물리고 나면 그대로 등 돌리고 앉아 해가 저서 새벽닭이 울 때까지 전통 조각에 매달리기도 한다. 시간을 참을 줄 아는 이만이 전통을 완성할 수 있단다.

막내아들 대학교 그만두고 가업 승계중

그가 본격적으로 화살통을 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45년 전으로 4대째 가업을 이어받은 것이다. 조선 순조와 헌종 때 통정대부를 지냈던 증조부가 취미 삼아 전통을 제작해 주변에 선물로 주던 것이 가업의 시초였으며 구한말 산남의진사로서 의병활동을 한 조부, 그리고 부에 이르는데 아버지는 그가 가업을 잇는 것을 한사코 말렸다. “아버지는 전통을 제작해 내다 팔고 대가로 곡식을 받아 왔는데 곡식이 없어 배고팠고 조부나 아버지 두 분 다 워낙 강직하고 대쪽같은 분이셔서 옳다는 일만을 추구했어요.” 그의 삼형제 가운데 맏이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하고 아우는 상업에 종사하며 그만인 아버지의 대를 이어 전통을 제작했다. 그 역시나 가난한 길을 참을인 자 새기며 걸어왔다. 지금에야 웃으며 가난을 곱씹을 수 있지만 자식들이 한창 자랄 당시에는 집에 쌀을 갖다 주지 못하여 식구들을 굶긴 적도 많았고, 쌀을 사려고 선친의 유품을 내다 판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는다. “나의 여식이 세 살 때 배고픈 것을 ‘배가 아파요’ 하던 것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에 걸려.” 그의 말처럼 이제는 아무리 가난해도 굶지는 않아서일까? 그보다는 뿌리를 지켜 후대에 길이 남기겠다는 장인 정신이겠지만, 그의 막내아들 김성권(31)씨는 다니던 대학교를 그만두고 5년째 아버지 밑에서 전통을 만지고 있다. 끊어질 듯한 명맥이 겨우 유지되는 듯하여 제삼자로서는 허공에 줄타기를 보는 듯하다. ‘100만 원 짜리 주문 받으면 200만 원짜리 만들 듯 한다’는 그의 말. 유구한 세월을 업고 내려온 전통 문화가, 인간문화재의 재능이, 근시안적인 재화로 가치 판단된다는 것이 서럽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무쌍함에 요동치 않고 5대 10대로 도도히 전승되는 전통이 되면 좋으련만. 

〈박지혜 기자〉



앙코르의 일몰



찬란하고 막강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앙코르왕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간 오늘날 그 후손들은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함으로서 외국의 원조없이 거세게 파고 드는 팜나무 뿌리조차 걷어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씁쓸하기조차 하다. 프놈파켄사원에서 바라보는 앙코르의 일몰은 가난한 나라 캄보디아의 현실만큼이나 아름답게 불타고 있었다.



송기동
(김천문화원 사무국장)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앙코르왕국의 사원이 보인다.

‘사스’의 창궐로 당초 계획보다 7개월이 늦은 작년 말에서야 4박 6일간의 베트남·캄보디아 여행길에 올랐다. 4시간의 탑승끝에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 노바이국제공항에 닿았다. 하롱베이로 향하는 거리에는 온통 자전거와 오토바이 행렬로 뒤덮였는데도 부딪치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 좁은 거리를 잘도 달려간다.

이런 가운데서도 낮익은 우리나라 대기업 브랜드가 자주 눈에 띄어 이역만리 남국땅에서의 느낌이란 그저 마음 든든할 뿐이다. 특히 중·대형버스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제품의 중고차량들로 무슨 백화점이니 어린이 보호 차량이라고 하는 한글 문구가 그대로 부착된 차량들이 하노이 시내를 운행하고 있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도심을 벗어난 버스는 베트남 여행의 주 목적지인 하롱베이를 향하고 있었는데 오랜 세월 월남전쟁으로 잘 알려진 베트남의 농촌은 너무도 평온한 한쪽의 그림이었다. 수확이 끝나 들판에

풀어 놓은듯한 소떼가 한가로이 풀을 고 있으며 제멋대로 자란 듯이 보이는 바나나 나무는 푸르름을 뽐내고 서 있다.

우리가 찾아 가는 하롱베이(下龍)는 용이 내려온 곳이라는 뜻으로 3천여개의 석회암과 에메랄드빛 바다가 빚어낸 천혜의 절경으로 10년전 유네스코가 세계 3대 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면서부터 베트남 최고의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간밤에 이곳을 도착한 우리는 아침을 맞아 호텔 창너머로 전개되는 검푸른 바다위에 점점이 박혀 있는 괴암괴석의 절경에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하롱베이 관광을 위해 목선 한척을 빌려 탄 우리 일행은 드넓은 바다에 붉은 모래를 흩뿌려 놓은 듯한 검붉은 색깔의 해적선과도 같은 배와 섬들 사이를 서로 달을락 말락 비껴가면서 관광길에 올랐다.

실제로 이곳은 수많은 섬들이 겹겹이 쌓여 있

하롱베이를 배경으로
문화원 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는 덕에 은폐가 용이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군사 요충지로 이용되었으며 해적들의 주요 활동무대였다고 한다. 최근에는 영화촬영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영화 ‘인도차이나’의 주인공 린당팜이 은신하였던 장소이며 정보영화인 007시리즈의 촬영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수도 하노이는 교통이 복잡한 러시아워에는 대형차량의 도심진입이 금지되어 있다. 하롱베이 관광을 마친 우리는 하노이로 들어가기 위해 ‘씨클루트’라는 자전거를 이용했다. 양쪽 도로변에 즐비하게 널어선 상점가를 스치며 하노이의 야경을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다음날에는 베트남 독립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호치민(胡志明)의 생전 집무실과 박물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궁과 맞닿아 있는 **호치민박물관은 호치민광장을 지나 아자수가 무성한 숲속 아담한 호수를 중심으로 서 있는데 평생**

독신으로 살아오면서 베트남독립을 위해 헌신한 그의 삶을 반영하듯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유품들은 한결같이 소박하고 검소해 보였다. 나라를 사랑하는 절제된 삶을 살다간 그에게 후세들이 존경과 흠모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는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숙연해 진다.

입헌군주국가로서 세계 3대빈국의 하나로 알려진 캄보디아는 1975년 크레르루즈가 집권 4년동안 150만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국민의 학살로 국제사회에 오명을 남기고 있다. 최근에도 정국은 불안의 연속이다. 이런 캄보디아도 9세기에서 13세기까지는 1백여개에 달하는 많은 사원을 건립하는 등 태평성대한 시절도 있었다.

캄보디아 문화를 대표하는 씨엠립의 앙코르와트와 앙코르톰을 비롯한 이 일대의 유적에는 인접국인 태국과의 투쟁의 역사를 다양한 형태의 조각으로 형상화해 놓고 있다.



호치민 광장에서 김천문화원
문화가족들이 카메라 앞에 섰다.

특히 앙코르문화의 전성기를 이룬 자야바르만 7세에 의해 서기 1200년에 건축한 바이온사원의 얼굴조각은 앙코르의 미소로도 불려지고 있는데 가히 압권이었다. 타푸름사원과 앙코르와트 일대는 성장력이 왕성한 자이언트 팜나무 뿌리들이 사원의 건축물 대부분을 뱀처럼 휘감고 있는 광경은 펍 인상적이다. 세계 7대불가사의의 하나인 앙코르와트는 12세기 전반 수리아바르만 2세에 의해 바슈누신(神)과 일체화한 자신의 묘로 사용하기 위해 건립했다고 한다. 힌두교의 신들과 그 대리인 격인 왕에게 버쳐진 선물로서 건축물마다 크메르인들의 독자적인 문화와 그들의 우주관, 신앙관이 담겨져 내려오고 있어 한층 더 의미가 있는 곳이다. 앙코르와트는 중앙 탑을 기준으로 동서 1,500미터, 남북 1,300미터 넓이의 석조사원이다. 사원 주변의 폭 200미터의 깊은 수로는 바다를 의미하며 외부로부터 사원을 보호하고 있다. 65미터의 중앙탑은 세계의 중심인 수미산을 상징하고 사원의 긴 회랑(回廊)은 히말라야산맥

을 뜻한다고 한다. 또 정교하게 건설된 운하는 관 계수로서 통치기반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찬란하고 막강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앙코르왕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간 오늘날 그 후손들은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함으로서 외국의 원조없이는 거세게 파고 드는 팜나무 뿌리조차 견어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씁쓸하기조차 하다.** 프놈펜사원에서 바라보는 앙코르의 일몰은 가난한 나라 캄보디아의 현실만큼이나 아름답게 불타고 있었다.

4박 6일간의 베트남·캄보디아 여정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들 두 나라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지만 오랜 옛날부터 수많은 외세의 침입으로 시달렸고 20세기 들어 이데올로기가 빚어낸 민족내분과 가난의 점철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찬란한 문명 한가운데 있었던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하루속히 긴 잠에서 깨어나 우렁차게 승전하는 두 마리의 용이 되길 기원해 본다. 

문화예술 교육의 어느새 풍경

- ‘남의 노래’만 가르칠 것인가?
- 제대로 노는 방법을 가르치자

문화예술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문화예술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왜 우리는 문화예술을 교육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심는다. (편집자주)

‘남의 노래’ 만 가르칠 것인가?



최종민
(철학박사 /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교수)

우리문화는 자생적인 고유문화가 계속 현재의 상황에 맞게 변신하면서(현재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와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들어와 한국식으로 수용된(한국화) 외래문화로 되어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학교의 공교육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교육하지 않고 외래문화 중심으로 교육함으로써 한국인들이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한국문화를 부정적으로 보도록 유도하였다. 이 일제의 학교교육은 그 효과가 해방 후에 나타나면서 한국의 학교교육은 계속 전통문화를 도외시하고 외래문화 중심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하게 되었다. 아직도 음악이라는 용어는 서양음악을 가리키는 용어로 알고 있고 미술 역시 서양 식 미술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해방 된지 60년이 가까워 오고 있지만 아직 우리네의 음악교육은 서양음악 중심으로 되어있고 교사들의 능력 또한 서양음악만 가르칠 수 있지 국악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은 ‘문화를 전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전통음악이나 전통 문화를 가르치지 않고 외래문화예술 중심으로 교육하는데 대한 반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화예술이 우리네의 전통과 외래의 것이 다르다는 것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서양 예술을 한국식으로 만들어 배우는 동안 그것이 바로 우리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고 본다. 문화교육이나 예술교육을 편향적으로 했기 때문에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된 것이다. 서양음악언어와 한국음악언어를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 조상들은 서양과 다른 음악이상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한국음악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직도 ‘서양 음악 중심 교육’에 대한 반성 없어

전통문화에 속하는 우리의 예술과 외래문화에 속하는 서양의 예술은 문화언어도 다르고 그것을 통하여 나타내는 아름다움도 서로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서양예술 중심으로 교육을 해 왔다. 서양예술도 현재의 서양예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전의 서양예술을 가르쳤고 우리의 전통예술은 거의 가르치지 않았다.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 21세기에 다른 나라와 문화적으로 경쟁하며 상품을 만들고 문화교류를 하며 살아 갈 수 있을 만큼 문화적으로 무장시키지 못했다. 내 것을 모르고 남의 것은 옛날 것만 조금 안다고 생각해 보라. 어떻게 선진국들과 문화적으로 경쟁할 수 있겠는가. 때문에 지금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은 그 동안 가르치지 않았던 진짜 우리 것을 가르쳐야 한다. 내 것을 먼저 확실히 알고 그 동안 경험한 외래 문화를 활용할 수 있어야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음악의 모국어’인 민요부터 하나씩 하나씩

음악의 경우 우리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교과서 민요 단원을 많이 넣고 국악악기도 가르치도록 해 놓았다. 그러나 실제 교과서 이전 단계인 교육과정이나 전체적인 음악교육의 틀은 서양음악 중심의 옛날 것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민요를 여러 노래의 단원 중 하나쯤으로 생각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 악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민요를 가르치고 우리악기를 가르치는 것은 목적이 달라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민요를 통해서 우리의 음악언어인 음악의 모국어를 가르쳐야 한다. 문화의 시대에 가장 절실한 것은 문화언어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20세기 후반에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자기네 문화언어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 왔는데 우리 문화계나 교육계는 그 문화언어에 대한 이해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안타깝다. 우리는 독특한 음악언어와 그 언어로 발달시킨 수준 높은 음악문화 유산이 많이 있다. 그 자체도 훌륭한 문화상품이지만 앞으로 더 좋은 문화상품을 창조하기 위하여 우선 음악의 모국어를 철저히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 음악의 모국어는 우리 민요를 통하여 다양한 우리 음악언어를 가르치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서양민요를 통하여 서양의 음악언어를 배웠던 것처럼 우리민요를 체계적으로 가르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악교육을 한다는 것은 곧 국악에 내재한 한국의 음악언어와 한국음악의 아름다움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 중 먼저 해결하고 더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국악의 음악언어인 한국음악의 모국어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이다.

‘국악강사 풀제’는 잘한 일로 점차 더 많은 학생에 혜택

전통음악으로 현재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악이고 서양음악과 서양음악언어로 만들어진 한국사람들의 작품이 양악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양악만 알지 국악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음악교사들 중에 서양 음악을 전공하고 교사가 된 사람들은 국악을 잘 모른다. 제6차와 제7차 교과과정에 의하여 대폭 늘어난 국악단원들을 지도할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2000년부터 국악강사풀제를 시행해 왔다. 이 제도는 응급처방에 속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음악교육의 정상화 방안은 되기 어렵다. 음악교사들이 국악을 가르칠 수 있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 하든지 아니면 양악과 국악을 완전히 분리하여 따로 가르치든지 해야 한다. 사실은 영어와 국어를 함께 가르칠 수 없듯 국악과 양악도 함께 가르치기 힘든 것이다. 그냥 겹으로 양악은 이렇고 국악은 이렇다고 가르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악의 음악언어인 음악적모국어(國語)를 가르치려면 국악을 따로 가르쳐야한다. 그래서 국악강사풀제를 시행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차츰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니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가지 후렴에 다양한 선’ 익혀야 우리 노래 맛 나

가르치는 교수법도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우리민요는 한 가지 곡조로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부르고 같은 후렴이라도 서로 다른 방법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말하자면 완전히 열린 방법으로 노래한다. 때문에 ‘진도아리랑’의 후렴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선율을 가르쳐야 할 정도로 다양하게 부르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다양한 가락으로 부르더라도 그 선율을 구성하고 있는 음 조직은 분명히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다. 아래 음(미에 해당)은 떨어주고 중간 음(라에 해당)은 그냥 뺀어내고 위에 음은 찍어(도-시에 해당) 내는 식으로 부르는데 그 세 부분의 관계는 유

지되면서 다양한 선율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남도 민요의 기본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 ‘진도아리랑’을 가르치면서 그 골격을 응용하여 메기고 받는 여러 가지 방법까지 실제로 해보면 저절로 흥이 나고 노래하는 재미와 함께 음악언어를 배우게 된다.



그렇게 남도 식으로 된 ‘진도아리랑’을 가르치고 나서는 계속 그와 같은 틀을 가진 ‘동당기당타령’이나 ‘농부가’, ‘흥타령’ 같은 민요를 여러 곡 지도하여야 그러한 민요의 음악언어를 익힐 수 있다. 지금 교과서의 노래만 한 두 곡 가르쳐서는 음악언어를 제대로 익힐 수 없기 때문에 같은 구조로 된 비슷한 노래를 여러 곡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다. 이 점을 대부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서도민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서도민요를 가르칠 때에는 서도민요의 음악언어가 분명한 ‘긴아리’, ‘자진아리’, ‘산염불’, ‘자진염불’, ‘난봉가’, ‘자진난봉가’, ‘사설난봉가’ 등 여러 노래들을 가르쳐야 서도민요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음악언어를 배울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서도민요로 ‘싸름타령’이 있는데 그 한 곡만 가르쳐서는 서도민요의 음악어법을 가르칠 수 없다. 때문에 ‘싸름타령’을 가르칠 때에는 반드시 앞서 열거한 서도민요의 특징이 강한 여러 민요들을 더 가르쳐서 서도민요의 음악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남도민요나 서도민요는 서양음악과 전혀 다른 음악언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음악언어를 제대로 지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음악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한국의 음악언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작곡가가 거의 없다. 판소리 명창들이 신작판소리를 만들고 창곡을 작곡할 때 판소리 음악언어로 작곡하는 예가 있긴 하지만 작곡가라는 사람으로서 한국음악언어를 구사하는 작곡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우리음악언어는 매우 다양하게 되어있다. 지방에 따른 음악언어도 다르고 정악과 민속악에 따라서 그 음악언어를 표현하는 표현양식도 다르다. 민요나 잡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발달한 판소리 같은 음악언어도 있어서 우리의 음악언어야말로 매우 다양하게 발달되어있다.

일상의 자아 벗어나 천인합일의 아름다움도 알게 해야 ‘진정한 음악’

예술은 문화언어를 통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우선은 음악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고 기본적인 과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을 통하여 발달시킨 우리음악의 높은 예술성을 알게 해야 한다. 우리음악은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가꾸어진 공동사회의 산물인데도 그토록 특징이 강하고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였다. 음악을 통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음악으로 천(天)·인(人) 합일(合一)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수준의 음악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 정악은 욕망을 억제하고 내 속에 잠재한 하늘이 준 천성(天性)을 회복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발달시킨 음악이고, 민속악은 흥과 한을 끝없이 발산하여 가장 순수한 자아를 회복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음악이다. 어느 것이나 다 일상의 자아를 벗어나 본래의 가장 순수한 자아인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발달한 음악이다. 이런 음악을 우리의 음악언어로 발달시켰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제대로 노는 방법을 가르치자!



홍승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아주 오래 전에 어떤 신문에서 읽은 이야기이다. 누군가가 파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중산층의 조건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대체로 세 가지에 대답들이 모아지더라는 것이었다. 그 중 하나는 폭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하기 위해 외국어 하나쯤은 제대로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또 다른 대답은 정서적인 여유를 위해 무엇이든 악기 하나 정도는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대답은 아무리 작은 정성이라 할지라도 늘 부족한 사람들과 나누고 돕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단 그 행위 자체가 규칙적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 이야기가 그토록 충격을 주었던 것은 당시 우리 사회에서도 중산층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었지만 그 대부분이 경제적인 능력과 수준을 가늠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겨우 생각한다는 것이 고작 아파트가 몇 평이고 승용차가 무엇이고를 따졌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 중산층의 의미는 그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우리만큼 외국어 공부에 열을 올리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싶지만 그 목적은 주로 취업이나 진학에 있다. 경제적인 시련에 직면했을 때도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은 예술가들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들과 사회복지 시설들이었다.

위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 조건들은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앞서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하나가 있어 다른 무엇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공통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



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무엇인가를 나누어 공유하려는 생각인 것이다. 외국어를 익힌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보다 많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고, 악기를 배운다는 것도 결국은 정서의 교감을 통한 공감을 얻으려는 목적일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야말로 마음을 통하여 함께 하는 일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실천이 문제라면 그것도 그다지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외국어 하나쯤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악기도 하나쯤 배우고 싶을 것이고, 이 정도의 마음씀씀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남을 배려하려는 생각도 남다를 것이다. 악기 다룬다는 것을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예술 전반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식견이 다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외국어를 구사해야 한다는 조건 역시 능력에 대한 요구보다는 관심과 노력의 정도를 묻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마음먹기에 달렸으니 지금부터라도 당장 실행에 옮기려는 의지만 가진다면 파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한참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던 70년대 이후 부동산 투기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던 적이 있다. 이전까지 그저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자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누구나 두 가지 길을 모색하게 된다. 가지고 있는 부를 지키거나 더 늘리는 방법을 찾는가 하면 동시에 그 일부를 써서 생활의 여유를 즐기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지금 같으면 재산 증식의 방법도 다양하고 삶의 여유를 즐기면서 보람도 찾을 수 있는 일들도 많지만 그 때만 해도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봉건시대부터 그랬던 것처럼 땅이나 금붙이를 사서 묻어 두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을 찾을 수 없었고 유흥업소를 찾아 주색을 탐닉하는 것 말고는 알지를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너나없이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 들었고 유흥업소가 그렇게 난립했다.

과거 유럽의 강국들이 무역국가로 성장하면서 중산층과 신흥 자본가들이 형성되었을 때 그들은 부동산이 아닌 다른 사업에 눈을 돌렸다. 영국의 자본가들은 종마 사업과 경마에 관심을 기울였고 네델란드의 자본가들은 화훼산업에 열을 올렸다. 그리고 공연 또한 그들의 큰 관심사였다. 이것들은 얼핏 달라 보이지만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어느 것 할 것 없이 재산증식과 더불어 여가를 즐기는 일이고, 또한 위험부담이 큰 대신 성공하는 경우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벤처 사업에 투자하는 자본가들을 엔젤이라 부르고 있지만 엔젤은 원래 공연사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일컫

는 말이었다. 말하자면 당시의 벤처 사업은 공연사업이었던 것이다. 공연이 성공하면 수십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 한꺼번에 투자한 금액 모두를 날릴 수도 있다. 그들이 공연이나 경마가 아니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다면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심각한 주택난이 야기되고 경제구조의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네델란드인들의 선조들은 꽃에 미쳐 신품종 개량에 열을 올렸기에 오늘날 그 후손들이 그 덕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우리네 부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지 못했다. 돈을 벌면서 즐기는 것은 고사하고 그저 즐기기만 하는 문제도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어느 부동산 재벌이 비서를 구하는데, 그 조건은 단지 매일같이 지루하지 않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거짓말 같은 실화는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다. 부자가 아니라도 우리는 친구를 만나면 습관같이 ‘뭐 재미있는 일 없느냐’고 물어본다. 이전에 누가 재미있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한다. 우리의 하루 일과는 대충 8시간 일하고 8시간 놀고 8시간 자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일하는 8시간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는 시간은 젓혀 두더라도 일하고 남는 8시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가르치지 않고 있다. 아니 그보다는 나머지 8시간도 일하고 공부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이 더 맞는 말일 것이다. 그래서 정작 삶의 여유가 생겨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드물다.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으면 배운 것을 써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마치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부동산을 사두려면 복덕방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 생활의 여유가 있어 누군가 나누고 싶고 일하고 남는 시간이 있어 무엇인가 즐기고 싶을 때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주는 복덕방이 있어야 한다.

모두들 문화를 이야기하고 예술을 들먹이면서 그것들이 마치 삶의 의미를 밝혀 주는 등불이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정작 문화가 무엇이고 예술

이 어떤 것이며 이것들이 인간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따지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누구는 문화와 예술을 동의어쯤으로 착각하는가 하면 더러는 자신과는 무관한 남들의 호사이거나 생각하는 지경에 있으니 문화복지나 생활문화, 생활예술이라는 말들을 수없이 되풀



이해도 공허한 메아리만 남을 수밖에 없다.

참다운 의미의 대중화 시대, 대중화 사회에서는 다수의 생각과 이익이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자본주의와 허울뿐인 민주주의가 지배하는 대중화라는 것은 다수의 구매력, 다수의 표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자본가와 정치가들은 다수가 원한다는 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하며, 대중화를 선포하여 그 속에서 누구보다도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대중매체조차도 자본주의의 논리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날의 진리이자 생존법칙이다. 수와 양이 큰 것이 옳고 만 원과 오천 원의 가치는 어떤 차원에서든 서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로부터 생존방식과 가치를 고수하려는 고품격의 문화와 예술들은 설 자리가 없다. 즉각적인 감흥과 오락을 원하는 절대 다수를 설득할 만큼 자극적이지도 않을뿐더러 대중매체와 첨단 기술에 힘입어 무한정, 무차별로 제공되는 대중예술에 비한다면 그 접근부터가 용이하지 않다.

결국 이대로라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예술양식들은 모두 그 존재를 위협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도래하는 정보화 시대와 변화에 적응하려는 자본주의의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또 다른 일면은 존재를 위협받는 모든 약자들에게 마지막 생존의 기회를 주고 있다. 불변의 가치와 진지한 반성이 사라진 이 시대에 걸러낼 수도 없을 만큼 쏟아지고 있는 엄청난 정보들은 그 수만큼이나 다양한 취향과 욕구를 만들어내고 있고, 수요가 곧 공급인 자본주의의 생리는 그런 욕구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는 언제 또다시 울지 모르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잠시일지는 모르지만 대중들의 요구가 우선하는 진정한 대중화 시대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 하나하나의 개체를 존중받는 바람직한 민주시대의 도래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대항할 수도 없는 거대 자본이 또 다시 정보를 지배하고 욕구를 통제하기 전에 우리 모두는 스스로 향유하고자 하는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생존하고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스스로가 문화와 예술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모든 일이 그런 것처럼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는 알고도 안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힘든 일은 피하고 어려운 길은 돌아서 가려는 것이 공통적인 심사이겠지만 그래서 제대로 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 소중한 것을 얻으려면 그만큼의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문화예술교육도 상식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식을 강조하려고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상식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한국여인의 표상, 강정일당(姜靜一堂)



한춘섭(향토사학자/시조시인)

靜一堂 姜氏 (1772. 10. 15~1832. 12. 14)는 조선시대 여류시인, 서화가, 호 정일당. 본관 진주. 윤광연(尹光演, 1798. 10. 15~1838. 7. 13)의 처, 시문·서화에 능하고, 성리학 경술에도 밝았다. 글씨는 황운조(黃雲祚)의 필법을 이어 받아 해서를 잘 썼고 시에도 도가의 기풍이 담겨져 있다. 시 작품으로 야좌(夜坐) 제석감음(除夕感吟) 경차존 지일당운(敬次尊只一堂韻)등 31수가 전한다. 저서로는 정일당유고(靜一堂遺稿)가 있다.



정일당 강씨 사당

강정일당은 가난한 선비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나 유별나게 총명하면서 효성스러웠고, 출가후 시부모를 모시며 여섯 살 연하의 남편을 섬김에 있어 남다른 옛 경서의 법도를 삶의 규범으로 실천하였던 여류 문사이자, 여성 성리학자였다.

정일당 강씨는 조선시대(영조 48~순조 32) 여류시인이며 서화가로서 성리학 경술에도 밝았다. 글씨는 황운조(黃雲祚)의 필법을 이어 받아 해서를 잘 썼고, 시에도 도가의 기풍이 담겨져 있다. 충북 제천군에서 태어난 진주강씨 문중의 한 여인 강정일당은 나이 19세에 윤광연(尹光演)과 결혼 전에 이미 사서삼경을 배우고 도학 문장과 부덕을 외조부와 부모로부터 두로 익혀 일가 친척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히 백세에 준거가 될 만한 천인’이라는 칭송을 얻었던 여성이다.

그의 <정일당유고>를 통해 조선 후기의 여류시인이며 성리학 경술에 밝았음을 알 수 있으며 그의 남편도 ‘말 소리는 안방밖으로 들리지 않았고 발자취는 대문 밖을 나서지 않았으며 음식 맛이 정갈하고 바느질 솜씨 또한 비범한 재주를 지녔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시어머니인 전지일당과도 시로써 화답을 주고 받을 만큼 문재에 뛰어나 이웃 사람들의 선망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다만, 애석한 일은 슬하에 5남4녀를 두었으나 그 어느 자식 하나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고단한 삶을 살았고, 가난한 선비의 아내로서 가족을 돌보고 조상제례 봉공의 정리가 출중하였다고 한다. 일상을 성현들의 말씀과 조상의 제례풍속, 혼례대사의 음식 솜씨, 학문과 서화 등에 있어 매사를 으뜸되는 바른 길로 손짓하며 우아한 정숙미와 한결 같은 단정함의 지성과 최상의 학문실행을 행동으로 옮긴 일생이었다는 찬사의 글이 유고집 평설에 담겨 전해 오고 있다.

궁핍한 살림에도 남편의 선비다운 학문 길의 전념을 위해 평생 헌신적 사랑을 바쳐 ‘당신은 성현의 글 읽기에나 전념하며 사리사욕을 멀리 하소서’라는 학문 조력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시에 나타난 ‘참 인간’로서의 교훈은 여러 편의 시, 서, 책독, 기, 제발, 묘지명, 행장, 제문 등 다양한 형식의 글귀에서 그의 단아했던 성품이 새겨져 있다.

그는 삶의 고난이 극심한 가운데서도 높은 학문과 뛰어난 지혜, 반듯한 행실의 자취는 개명사회인 우리 현대인 앞에서도 으뜸의 며느리, 으뜸의 어머니로서 표상을 삼아 무방한 큰 여인이다.

<정일당유고>집에 수록된 30여 편의 한시는 남편 윤광연의 말대로 ‘내 아내는 시를 아주 적게 지었으나 요지는 모두 배우는 사람이 스스로 깨우치는 말뿐이요’라 하였다. 한편 <정일당 시발(詩跋)>의 권우인 글에서도 비록 부인이 지은 시라도 전혀 여자의 기상이라고는 없고, 산림에 숨은 선비가 학문을 연구하는 뜻이 있어서 재주 있는 부인이 자기의 회포나 쓰고 어떤 물건이나 읊조리는 데는 비유할 바가 아니다. 비록 글을 읽어서 자기의 뜻을 세웠다고 자칭하는 선비라도 아마 자기를 반성하며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는 공부에 있어서 이만큼 부지런히 할 수는 없는 것이다(중략)

정일당은 이 시만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사서(四書) 읽기를 좋아하여 의심나는 곳과 발명한 곳에 있어서 많은 기록을 남겼다. 그러므로 사임당과 윤지당의 시문을 다 곁해서 잘했다고 할 수 있다. 정일당의 시 작품 세계는 서정성에 못지 않게 교훈적인 사상성의 강조였다.

선달 그믐 밤(의역)

일도 없이 좋은 세월 다 보냈어라/
내일이면 내 나이 쉰 하나./
밤중에 슬퍼한들 무슨 소용 있으랴?/
여생을 도둑아 가며 살아가려 하외다.

除夕 感吟

無爲虛送好光陰/五十一年明日是
中宵悲歎將何益/且向餘生修厥己

서당 아이의 매맞음을 바라보며
아이야, 근신하고 삼갈 수 있겠는가?/
왜, 네가 매를 맞는가? 이제 뉘우침이 생기거든./
마음을 다해 바른 몸가짐을 회복하여라.

見書童被撻

爾能謹而慎/過罪何處從
自今便有悔/誠心復正容

존경하는 시어머님 정일당의 시에
삼가 답합니다.(1797년 정조 21년)
배움은 모름지기 윤리를 돈독히 하는 데서
시작되니 어린이를 자애롭게 대하고
노인을 편안히 모셔야 겠지요.
고삐를 곧추잡고 이 길을 쫓아가면,
이로부터 탄탄대로가 이어질 겁니다.

敬次尊姑一堂韻

下學須敦倫/慈幼且安老
直從此行/自是坦坦道

밤에 홀로 앉아(1823년 순조 23년)

밤 깊어 모두 고요해지니.

빈 뜰엔 달빛만 새하얗다.

마음은 씻긴 듯 맑아,

홀연 성정이 드러난다.

夜 坐

夜久群動息/庭空晤月明

方寸清如洗/豁然見性情

그의 여러 형식 글 속에도 송나라 성리학의 진수를 마음에 새겨 놓고, 덕성과 학문 연마에 힘쓰기를 천성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 당부하였던 이였다. 문장이 화려하지 않은 반면, 몸과 마음을 올바르게, 항상 성(誠)과 경(敬)을 권면한 글쓰기를 하였던 이였다.



정일당 강씨 묘소

김미란 교수는 강한 도덕적인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하여 정일당은 세속의 여러 가지 어지러운 세태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안빈낙도하는 생활자세와 맑고 평화로운 심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 외 2002년 3월 발행한 <강정일당>에서 이영춘 교수는 정일당의 철학이나 문학은 조선시대 여성사회에서 매우 특이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 조선후기 성리학의 여성계 보급과

점증하는 여성들의 학문활동 및 의식성장을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여성들의 사회활동이나 교육과 문화에 대한 제약은 심하였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학술과 문예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점차 많아지게 되었고, 임윤지당이나 강정일당처럼 높은 수준의 학문을 연구하고 수양을 위하여 실천한 여성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18세기 이후 조선사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여성들의 의식 성장은 이 시기 사회, 경제의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근대적 맹아의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강정일당 서세(逝世) 후 154년이 된 1986년도에 성남시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되어 그 동안 사당 건립 및 각 추모행사를 연례행사로 정착시켜 온 성남문화원에서는 여류문사 강정일당의 문집 수집과 인물연구 발표, 여러 가지 전통문화 사업을 전담하면서 지속적으로 시민홍보를 해 왔다. 그러면서 훈탁한 이 사회를 바르게 고쳐 나갈 영원한 큰 어른의 모습으로 옷 자리에 모셔야 할 분이라고 하겠다. 강정일당의 행장(行狀) 속에는 천자(天姿)가 몹시 높고, 행실이 대단히 순수하여 하늘과 사람 사이의 성명(性命)의 미묘한 이치와 왕도와 패도의 간사하고 정당한 의리를 속속들이 연구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존양성찰(存養省察)의 공부와 중화(中和)의 덕을 많이 쌓았다. 그것이 문장으로 표시되어 마치 봉황새의 광채가 찬란한 것 같았으나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숨겨서 아무 것도 모른 것 같이 하니...

이 예사롭지 않은 품격 높은 삶의 평가를 재삼 되뇌이면서 이 시대를 뛰어넘어 잠시, 거쳐가는 우리 모두가 새삼스럽게 강정일당의 높은 생활지표를 귀담아 들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

변화하는 문화환경 달라지는 지역문화

◎고속철 시대 개막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순풍인가? 역풍인가?’

◎행정수도 이전

서울이 ‘이전하면’ 문화가 ‘발전한다’

◎주5일제 근무

‘가족’ ‘레저’ ‘체험’ 이 지역문화 성공 키워드

변화하는 문화환경 달라지는 지역문화 **고속철시대 개막**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순풍인가? 역풍인가?

이기태(한국디지털대학교)

반만년 중앙체제에 ‘변화’

고속철도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맞이하게 되었다. 경인선이 개통된 지 106년 만에 우리는 시속 300Km라는 환상의 속도를 지닌 고속철도를 만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개가는 경부고속도로와 초특급열차인 새마을호가 운행된 후에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묶으면서 우리 생활의 엄청난 변화를 야기 시킨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인적·물적 이동뿐 아니라 문화까지도 고속철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속철시대의 개막은 경제적 변화뿐 아니라 그동안의 문화적 배경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하다.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써 반만년에 가깝게 진행되어 왔던 중앙중심적 체계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고속철시대와 더불어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재질서화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한 때는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가 하면, 또 최근에는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를 가지면서 지방이 서울에 종속되는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축제·관광 등 발전 전략 구상중

고속철은 서울과 지방을 더욱 친밀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식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것인가이다. 지방이 서울에 종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까워진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된다면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종속적인 경향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지역문화계는 그야말로 설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각 지역사회에서는 고속철의 개통을 대비해서 많은 전략을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고속철의 지방 정착역을 기준으로 한 문화권은 대전·충청권, 광주·전남북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등 4개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지역이 공통적으로 구사하는 전략은 역세권 중심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발전이다. 기존의 역사문화유적지 중심으로 한 공주·부여 중심의 백제문화권(대전·충청권)/ 광주·목포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코스 및 테마여행코스 개발, 백제문화권 개발(광주·전남북권)/ 지역 문화축제와 연계한 관광 코스 개발, 안동 유교권 및 인근 문화권 투어, 경주와 동해안 관광산업 개발(대구·경북권)/ 해양수산탐방, 국제크루즈, 연안여객선과 항공망 및 고속도로를 연계한 내륙관광, 해운대관광특구개발과 함께 남부권 관광, 울산시와 강원도 및 경상북도를 연계한 동해안권 관광, 밀

양시 자체 및 인근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유적 및 생태자원 개발, 부곡온천관광특구에서의 스포츠콤플렉스(부산·경남) 등의 관광상품 개발 계획이 그것이다.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으로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중심의 개발(대전·충청권) / 섬유산업과 기계금속산업분야의 활성화(대구·경북권) / 한방(韓方)도시와 보석도시로의 개발(광주·전남북권)등이 있으며, 모든 문화권에서 계획하고 있는 역세권의 상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전략은 경쟁적이라고 할 정도이다.

지역별로 특히 돋보이는 것은 역시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려낸 전략이다. 고속철 개통으로 서울 중심부와 가장 가까워진 지역인 대전·충청권은 1시간이면 왕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전략을 기획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 고속철 통근족, 수도권 대학의 강조 등을 통해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다. 광주·전남북권에서는 '관광호남의 새 장(章)'을 열기 위해서 남도음식특구, 향기산업특구, 레저특구를 지정·운영하는 등, 풍부한 역사와 문화, 자연자원의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부산·경남에서는 관광산업과 교통산업 활성화, 건전한 웰빙문화 개발을 위해서 '의료 휴양 진료 실버 산업'을 패키지로 한 의료 허브를 구축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고속철도가 가져다 줄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고속철도 꿈은 이루어진다?”

위의 전략들은 어느 정도 허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속철을 타고 와서 제시하는 데로 움직여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속철이 몰고 올 바람의 방향이 지방의 꿈과는 다른 방향일 수도 있다. 지방에서 본다면 고속철의 ‘역풍’인 셈이다. 서울·수도권의 기대와 발전 전략을 보면 금방 이해된다. 상황에 따라서 서울·수도권의 문화가 지방을 얼마든지 흡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속철의 개통은 서울을 하루만에 즐길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야말로 ‘아침·저녁은 집에서, 점심은 관광과 함께 서울에서’를 가능할 수 있도록 특정계층 대상에 따른 맞춤형관광을 유도하는 등 위한 서울시의 관광상품 개발 전략도 만만치 않다.

‘철도교통의 핵’으로 부상한 용산과 광명시를 보면 더욱 자명해진다. 용산역 주변에는 첨단 국제업무단지와 고층빌딩단지가 들어선다. 민자역사의 쇼핑타운인 ‘스페이스9’에는 전자전문점·패션 아웃렛·할인점·멀티플렉스영화관·영화관·할인점·패션전문점 등 그야말로 괴물 같은 종합상가가 자리하게 된다. 광명시의 역세권에는 첨단음악산업단지와 국제업무지구, 관광레저도시가 들어선다. 특히 첨단음악산업단지에는 대중음악의 육성·지원을 위한 스튜디오, 음반기획·제작·유통단지·다양한 크기의 공연장

등 대중음악에 관한 모든 것이 준비된다. 이러한 변화는 고속철과 관련해서 야기될 모든 것을 마구잡이로 흡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방의 산업과 문화까지도.

그렇다면 지방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한 연구소의 발표와 같이 사람들이 오히려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지방도시는 서울의 위성도시화 하는 꼴이 될 것이며, 지방의 문화는 서울로 흡수되면서 그나마 존재했던 지방이라는 아름다운 꽃이 시들어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더구나 시간의 단축을 가능하게 한 고속철이 지방 산업의 활성화는 어느 정도 보장할지는 모를 일이지만, 상권과 문화예술분야의 약화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일이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강조해야

고속철의 개통이 그동안 갈망하던 모든 것을 지역사회에 가져다 줄 묘약은 아니다. 한편에서는 도약의 발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고속철로 인해서 가장 큰 덕을 입는 곳은 역시 서울·수도권일 수밖에 없다. 지방의 혜택이 국부적이라면, 서울·수도권의 혜택은 종합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이 스스로 서울·수도권을 닮아가려 하거나 예측되려고 하는 것은 고속철이 가져다 주는 혜택을 멀리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

극히 경계해야 할 자세이다. 특히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무형자산인 문화분야에서의 자세는 더욱 그러하다.

지역문화계의 발전 전략의 중심은 자기 지역이어야 한다. 이것은 문화뿐 아니라 경제전략까지도 지역문화사적 배경을 가장 잘 살려야 한다는 말이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권과 차별화 되는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고속철이 가져다줄 혜택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매달리지 말고 지방이 진정으로 건전하고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한 원시안적인 장기전략이 절실하다. 지역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게 될 인재양성과 우수인력의 유치 전략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역이기주의에 얽매이기보다는 진취적이면서 글로벌한 자세가 요구된다. 인접국가나 지역과의 연계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익산과 공주·부여가 연계된 백제문화권 관광산업 개발이나 중국과 일본을 연계시킨 관광객 유치 전략은 좋은 사례이다. 또한, 시간상으로 너무나도 가까워진 인접국가나 중앙을 지역 속으로 적극 끌어 들여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먼저 그들에게 접근해야 한다. 서울·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가 지방으로 움직일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찾아올 수만 있다면, 지역사회는 확실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중앙 의존 경향이 강한 현대 문화예술분

야의 경우, 우수한 전문가들이나 장비들을 유지하려는 적극적이면서도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속철이 지역사회에 대한 그 동안의 불균형을 청산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에 두고 서울·수도권과 인접국가까지도 주변으로 인식할 수 있는 주도적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때이다.

세계 경쟁력 지닌 지역문화로...

지난 1월, 비록 많은 비판도 있었지만, 정부에서는 국토발전전략과 국가운영시스템을 지방화체제로 전면 개편하려는 종합적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다. 지역사회의 발전전략을 지역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지역사회의 발전과 관련한 제반 계획이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고민한다면, 그 상승효과는 배가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고속철이 우리의 지역문화를 세계 속으로 실어 나를 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국내의 변화만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우리의 고속철은 남북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와 연계되면서 '21세기 철의 실크로드'의 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내에서 중앙과 지방을 논할 것이 아니라 세계를 대상으로 대한민국과 외부세계를 논하게 될 그 날이 되면 다양성이 살아 숨쉬는 지방문화가 엄청난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될 것이다. **무**

변화하는 문화환경 달라지는 지역문화

행정수도 이전

수도서울이 내려가면 문화격차가 해소된다

행정수도 이전은 당연히 우리나라 문화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현재의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 및 자원의 집중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는 만큼 문화예술에
있어서도 시설, 인력, 그리고
프로그램의 집중현상 또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갑영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실장)



행정수도 이전은 분권·분산의 의미

지난 대통령 선거의 당락을 결정할 정도의 위력을 지닌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그 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의미를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서울의 의미는 단순히 행정수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반도 안에서는 중심을 의미하며 정치와 행정만이 아닌 사물의 중심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로 간다는 표현을 전국 어디에서든지 올라간다고 하고 있으며 각 지역으로 가는 것은 내려간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지난 10여 년 간 지방자치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면에서의 중심은 서울로 남아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행정수도의 이전은 문자 그대로만 이해한다면 정부의 행정 기능을 옮긴다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중심의 일부 혹은 상당부분이 분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향후 우리의 삶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행정수도 이전은 그 자체만이 아니라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등과 같은 또 다른 중요한 국가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신 행정수

도 이전을 포함하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은 모두 작년 년 말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법들이 의도하는 바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고루 나누어 수도권만이 아니라 전국에 균등한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그 자체로서도 분권과 균형발전의 의미가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 대단히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정수도 이전은 당연히 우리나라 문화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현재의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 및 자원의 집중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는 만큼 문화예술에 있어서도 시설, 인력, 그리고 프로그램의 집중현상 또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의 자본, 권력, 인적 자원 등에서부터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의 편중과 불균형은 수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발전의 엄청난 장애요인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됨으로서 야기된 불균형 현상은 다음과 같다. 2000년 현재 전 국토 면적 11.8%에 인구의 46.6% (서울 21.4%, 2001년), 총량경제력의

52.6%, 금융거래비중 70.4%, 조세수입비중 70.9%가 집중된 서울과 수도권은 문화예술에 있어서 더 심한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1998년 통계에 따르면 무용과 연극의 36.9%, 미술전시의 51.9%, 음악공연의 42.4%, 문학행사의 40.1%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저명인사의 지역분포를 예로 보면, 1985년 현재 전체 3739명에서 3440명이 서울에 거주하여 한때 92%에 달하기까지 했다. 탈 서울바람과 비대해진 수도권 덕택에 1999년에는 유명 예술인 2217명 중 52.6%, 5대 광역시 21.0%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인적 자원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전국 각 지역의 열악한 문화환경은 이러한 서울 및 수도권 집중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면 행정수도 이전은 우리나라 문화환경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물론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문화적 자원의 집중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것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 문화 불균형의 근본적인 해소를 의미하는 수준의 분산과 균형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

칫 또 하나의 대도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오히려 전국적으로 지역문화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정수도 이전이 가져올 수 있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문화 집중현상의 분산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 스스로 지역문화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원칙을 보다 강조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지역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과 같은 또 다른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가 있는 만큼 여기에서 균형발전과 분권을 위해 지역문화환경 여건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시도는 행정수도의 조성을 철저히 문화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분산효과와 함께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만드는 것이다.

‘인간중심’의 행정수도 건설해야

그렇다면 신 행정수도를 문화적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우선 기존의 성장과 개발 중심의 가치가 도시계획에 반영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중심으로 도시가 건설되어야 하며 인간의 삶에서 문화

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계획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에 친화적인 도시가 조성되고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면 전국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역문화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예를 들어 우리보다 앞서 행정수도를 건설한 외국을 보면 워싱턴 DC의 경우 단순히 국가의 수도로 또 정치의 중심지로서의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역대 대통령 기념관, 자연사박물관 등 문화적인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어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역시 갖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도이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브라질의 브라질리아와 호주의 캔버라 역시 오늘날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도시들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문화적인 도시로서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친환경, 인간중심의 문화도시인가 라는 물음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는 거주하는 시민들이 도시의 문화환경을 가꾸는데 주체가 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알려진 브라질의 또 다른 도시 꾸리찌바 같이 친환경 및 인간 중심의 문화도시조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문화기반시설을 비롯한 객관적으로 필요하고 충분한 문화인프라의 구축 그 자체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배제된 계획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오늘날 우리의 지역문화가 이토록 열악한 환경에 직면하게 된 데에는 지역주민의 문화적 참여 부족이 결정적이었음을 인식한다면 이러한 사례는 더욱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기회

행정수도가 이전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이전 지역도 정해지지 않은 지금 행정수도 이전이 야기하게 될 우리나라 문화환경 변화에 대한 이런 저런 논의를 하는 것이 다소 성급할 수도 있다. 더욱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엄밀한 분석보다는 이러저러해야 한다는 식의 당위적인 사실을 열거하게 되고 그 자체가 진부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가 우리나라 문화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몇 가지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중심, 문화와 생태중심의 도시개발에 대한 논의와 신 행정수도 역시 이러한 도시개발 모델을 따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화와 인간중심 도시에 대한 논의는 자연히 인간의 삶의 질 차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도시가 문화적으로 자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해 질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신 행정수도를 문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서도 더욱 강조될 것이다. 주민참여 문제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이 전부터 주장되어 오던 것이지만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예상해 볼 때 행정수도 이전에 관련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전국의 각 지역이 자신들의 문화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정부예산편성 방식의 개선 등으로 지역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지역에서는 문화적 가치가 반영된 개발과 문화환경 개

선을 위한 정책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각 지역은 자신들의 여건에 비추어 인간의 삶에 이상적인 문화환경을 갖추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연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문화시설이 얼마나 필요하며 어디에 배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갖추어 져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지역이 어떠한 문화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어떠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행정수도 이전이 자신들의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지역의 입장에서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신 행정수도 조성을 주도하는 측에서도 문화적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연구하고 노력할 것이다. 또 서울과 수도권 또한 그 나름대로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특히 수도권의 문화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며 행정수도 이전은 자칫 이곳을 위기에 직면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의 이전은 이런 점에서 모두에게 문화발전을 위한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 

변화하는 문화환경 달라지는 지역문화

주 5일제 근무제

‘가족’ ‘레저’ ‘체험’ 이 지역문화 성공 키워드



권두현(안동국제 탈춤페스티벌 사무국장)

산업사회 병리현상을 비판하는 시도로 소위 ‘게으를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논의와 한 줄기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은 최근 여가 확대로 나타났고 한국사회에서도 주 5일제로 가시화되었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논의들이 문화와 예술에 대한 향유로 집중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간접적이며 긍정적으로 문화예술활동에 대중들의 관심을 추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 5일제 시행은 문화예술계에서 주목해야 할 사회적 변화이다. 이제 대중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특히 문화예술적 취향이 주 5일제로 늘어난 여가시간에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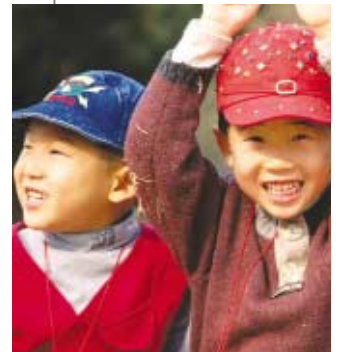
주 5일제가 실시된 이후의 삶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예측된다. 물론 그 기대치와 실제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여가시간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여행, 관광, 취미, 자기계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주 5일제의 기대치와 과제

한 취업사이트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 5일제 이후 과거보다 많아진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자의 경우는 29.4%가 자기계발을 23.3%가 취미활동을 17.2% 여행을 하겠다고 하였으며 여자의 경우는 29.4%가 여행을 그리고 24.4%가 취미활동, 23.9%가 자기계발을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한국관광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주 5일제에서 여행과 관광은 4.9%에서 25.6%로 늘어나고, 취미 및 교양활동은 4.9%에서 8.8%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주어진 문항과 의미에 따라 조금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주 5일제 시행에 따라 오락적 요소를 견인한 삶의 활력을 찾고 자신의 내면적 성숙과 외적 기량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에 공감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주 5일제를 먼저 시행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해 보면 주5일제를 시행하는 것, 그 자체로만으로는 문화활동의 확산, 여가활동의 증대, 문화산업의 소비가 증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근무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짧은 시간 안에 주어진 일을 해결해야 하는 부담감이 증대되고, 남은 여가시간에 오락을 과도하게 즐겨 수면부족 현상까지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생산성을 이유로 관련된 기업이나, 근무자들은 주5일제 도입 이후 작업장의 노동강도가 높아졌고 높아져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근무압력이 강화된다고 한다. 말하자면 노동시간의 단축은 일의 압박감을 여가시간의 확대는 오락시간의 증대로 오히려 쉴 여가를 빼앗기는 부정적 영향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주 5일제 시행 초기에는 여행과 취미 오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휴일에 ‘잠을 잔다’, ‘집에서 주로 TV를 시청한다’는 등의 수동적인 활동이 확산된다는 연구보고도 눈에 띈다. 따라서 주 5일제가 경제활동보다 여가활동에 대한 기대치를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늘어난 여가활동을 보다



가치있는 문화활동으로 진행시키고 강도높은 근무압박에 대한 문제를 해소시켜 삶의 풍요로움을 극대화시키는 과제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이와 여성이 문화소비층 주도

여가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분야가 바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다. 영화 나 대중공연 등 오락을 가미한 대중적 문화예술 작품이 그것이다. 사실 엔터테인먼트 즉 오락은 대중문화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왔고 검토되어 왔기에 소위 순수예술활동을 지향해온 사람은 경원시 한 측면이 있어왔다. 그러나 **오락적 요소가 중시된 문화예술활동**은 산업미디어와 결합되어 주 5일시대에 대중들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로 자리매김될 것이기에 소위 순수예술계에서 이를 외면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더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대중들의 선호도는 이제 대중문화, 순수예술이라는 분별적 경계도 상당부분 무너뜨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예술계는 대중적 요구를 수용하여 오락적 요소를 가미한 문화예술활동 말하자면 문화산업에 얼마나 품격 높게 예술적 가치를 창의적으로 제공할 것이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이다.

물론 순수문화예술적 영역에 대한 고려와 사회적 인정과 긍정이 동반되지 않고 엔터테인먼트 발전은 있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대중문화의 발전은 곧 순수예술의 창작영역이 필요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문화예술적 가치가 제외된 엔터테인먼트가 기획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다가가는 빈곤의 악순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하고 바람직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보다 나은 대중문화가치를 창출하는 소통구조가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는 여러가지 근거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주목해야 할 것이 주 5일제와 산업사회의 진입으로 문화 소비의 주도층이 젊은이와 여성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들의 소비성향은 전통적 문화 장르를 곧잘 거부하고, 재미를 추구하며 문화적 가치를 새롭고 때로 충동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극적인 측면을 가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들의 소비욕구가 가볍고 또 저급하다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대중이라는 획일성속에서도 독창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나름의 의미부여를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층이다.





또하나 주목할 것은 취향의 다변화이다.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표현해도 좋은 이러한 경향이 사회적으로 만연할 것이다. 대중문화의 부정성이 획일화와 더불어 다양화는 향유 문화의 양극으로 기능할 것이다.

결국 문화예술계는 주 5일시대 확산된 우리시대 문화요구, 문화소비층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만은 없다. 오히려 책임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이들의 문화욕구를 더욱 건강하고 가치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적 가치가 담긴 다양한 창작물과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대중적 소비성향에 주목하며 문화예술 수용층의 가치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가족 레저 중심의 문화 예술 욕구 커

한길리서치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주 5일제에

대한 설문을 한 결과 휴일을 가족과 함께 보내겠다는 대답이 30.3%로 가장 많았다. 과거 업무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하여 가족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아버지에서 벗어나 이제는 스스로 가족의 성원으로 여가를 향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가의 주체와 단위도 개인에서 가족으로 전환된다. 여행, 관광, 문화예술활동에도 가족과 함께한다.

이점을 직시하고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분야가 바로 레저, 서비스, 관광 분야라고 판단된다. 실제 외국에서 주 5일제를 시행하였을 때 레저와 서비스, 관광 분야의 매출은 경제적 여건이 나쁘다 할 지라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소위 레저, 서비스, 관광업계가 과거와는 달리 문화예술분야와 접맥을 통해 비즈니스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모든

레저와 서비스 관광분야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시나 공연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채택하지 않은 곳은 없다.

동시에 과거 순수 문화예술장르 마저도 이제는 가족단위로 사회적 체험프로그램으로 전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가령 도예의 경우 도자기체험으로, 미술의 경우 함께 만들어가는 미술체험, 문학 캠프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일률적인 문화체험과 인스턴트적인 요소이다. 소위 상업적 일회성이 문화예술에 대한 깊이를 제어하는 부정적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모든 활동이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활동 전체를 차단시켜서는 안되며 차단시킬 수도 없다. 오히려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살려야 한다. 따라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보다 폭넓게 가지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앞서 제공하고 시행하는 일이 필요하다. 대중적 관심만을 모으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삶의 가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야 하는 것이다. 문화예술 주체들의 가치있는 예술적 경험과 의지가 담긴 깊이를 담은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이 진지하게 모색되고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화예술적 자기계발 욕구 증가일로

주 5일시대의 가장 중요한 점은 삶의 풍요로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이 제공된다는 사실이다. 자기계발의 가능성과 가치와 관심에 따라 다양성을 견인한 사회활동은 각성되고 활성화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계발 활동은 사이버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중심의 활동과는 다른 정서와 감성

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말하자면 지식 나열과 암기보다는 삶의 가치에 감동하고 다른 대상에 감응하는 활동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결국 기능적 수련보다는 문화예술적 감각과 창작, 창의력이 주목받고 중심에 자리매김 될 수 밖에 없다.이에 따라 문화자원봉사가 활성화되며, 문화적 행위와 창작 요구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룹차원의 예술 창작모임과 유무형 문화재를 활용하고 이해를 증폭시키는 활동이 지역마다 의미있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문화예술계는 가시적이고 산업화된 가치에 주목하기보다는 어쩌면 이러한 가치지향의 자기계발에 대한 더 많은 요구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문화예술계는 이제 그 답을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

수용자인 대중을 문화창작의 주체로

주 5일제에 따른 여가시간의 확대와 이에 따른 대중들의 문화요구를 충족시키는 일은 문화예술계가 늘상 가져왔던 “공감을 하지 못하는 대중에 대한 아쉬움”을 해결하는 기회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전술한바 여가시간의 확대가 단순히 문화예술활동의 확대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또한 엔터테인먼트와 산업미디어, 인스턴트적인 기획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에 동반된 부정적 경향은 넘어야 할 웅덩이이다.

이 웅덩이에 빠지지 않고, 사회적 문화요구를 건강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감동적인 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만들고, 문화창작의 판에 수용자인 대중을 끌어 들여 문화창작 주체로 세우는 일을 통해 이러한 면을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9]



회의도 경쟁력이다 ⑤

의결(議決) 절차와 표결(表決)

김점동(회의자문 동우에쓰엔시 대표)

회의에서 의결은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어떻게 보면 올바른 의결을 도출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의결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표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안건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

표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결정족수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국회법 제109조에는 “의사(議事)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원 표준정관 제23조는 “①총회는 재적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총회 의결권 다른 회원에게 위임 ‘가능’

제23조 ②제1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개시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경우 참석한 회원을 다른 회원 1인에 한하여 위임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은 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이므로 의결권 위임 규정이 없는 데 이는 문화원의 이사회에서 이사의 의결권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위임할 수 없는 것과 같다.

1인에 한하여 회의개시 전까지

이와 달리 문화원 총회는 위임규정을 두되 회원 1인에 한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위임장을 회의개시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회원이 여러 장의 위임장을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1인의 위임장만 유효하게 처리하고 나머지는 무효화해야

하는데 위임장은 복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임의로 위임할 수 없다.

‘복대리 위임장’ 작성해 의결권 행사

위임을 받거나 위임할 회원은 위임장에 “의결권을 회원 누구에게 위임하고 복대리 위임도 허용”한다고 명기하여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이 위임회원의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만전을 기하는 일이 될 것이다.

실제로 총회가 개시된 시간이 ‘기준’

“회의개시 전”이라 함은 예정된 총회 개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조금 늦어져서 10시 10분에 총회가 시작되었다면 실제로 총회가 개시되는 시간인 10시 10분까지 접수된 위임장은 유효한 의결권수로 합산하고 표결이 있을 경우에는 10시 10분까지 접수되었으나 출석수에 잡히지 않은 위임장이 있다면 그 수를 합산한 의결권수를 기준으로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위임 의결권은 개시 전 접수분에 한해

또한 위임에 의한 의결권수는 회의개시 전까지 접수한 것만 유효하고 개시후에 접수하는 위임장은 의결권수에 합산하지 않아야 정관에 적합한 행위가 될 것이다. 실무적으로 오전 10시 10분에 과반수가 출석하여 총회가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현재에도 접수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면 그 숫자는 회의개시 전에 접수한 위임

장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회원 본인이 총회 개시 이후에 접수를 하면 당연히 출석수에 합산을 하고 표결이 있을 경우 총회 개시 당시에 보고한 의결권수에 가산을 해야 한다.

과반수 출석이 안되면 개의할 수 없어

또 10시 30분이 되어도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문화원 총회는 개의할 수 없다.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는 정족수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개의시간 이후에 더 많은 주주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총회를 일단 개의하고 표결이 있을 경우에 최소한의 의결요건인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보통결의) 또는 3분의 1이상(특별결의)의 수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한편 국회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도 같다. 이는 의결에 있어서는 정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의사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7년에 개정된 부분이다. 문화원 총회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전호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한다.

정관변경은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

문화원 표준정관 제45조는 정관 변경에 관한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하는 있는데 “본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의 의결권은 위임 ‘불가능’

문화원 표준정관 제29조에는 “①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총회와 달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사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의결 제척사유

총회나 이사회 모두 의결 제척사유를 두고 “일반 회원 및 특별회원이 (임원)이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결 제척사유는 공정한 규정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총회나 이사회의 진행을 너무 번거롭게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데 사전에 후보가 결정되어 있거나 즉석에서 추천을 한다면 모르되 막연한 상태이거나 회원 누구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수의 회원을 가진 문화원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회원 몇몇을 후보로 추천하면 추천된 본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행사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30명의 회원을 가진 문화원에서 실질적인 원장 후보 2명이 경합을 벌이게 된다면 의결권수 30표중에서 2표는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의결권이 없어져 28표가 되는 바 2명에 대한 지지표가 분산되

어 14표씩의 박빙이 예상될 때 A후보측에서 B 후보 지지자중에 몇 회원을 원장 후보로 추천하거나 제3자를 가장하여 B후보 지지자중 몇 회원을 원장 후보로 추천하고 그 후보가 후보를 승낙했을 경우 제척사유가 발생하여 의결권수가 줄어들게 된다. 더구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장이 원장 후보가 아닌 경우 의장 본인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고 의장이 원장 후보인 경우에도 원천적으로 본인의 의결권이 제척사유에 해당되게 된다.

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은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인 만큼 총회에서 다루어야 하고 결의요건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보통결의사항이다. 또 표준정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서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무)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에 대하여 회원 제명을 의결한다면 그 임원은 회원자격을 상실함은 물론 임원직에서 해임되는 결과가 된다.

표결의 단계

1)총회전 이사회에서 회원 승인 절차를 밟아 회원수를 확정한다.
가입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회원이 되는 것은 아

니다. 또 회비를 냈거나 안 냈다고 회원 자격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아니다.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2)총회 개시 전 출석한 회원수를 확정한다. 위임장에 의한 출석수를 정확히 계산한다.



3)총회 개시 전후 접수를 마치고 귀가한 회원의 의결권수를 제외한다. 회원 본인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귀가한 경우는 2표를 제외한다.

4)귀가하는 회원 본인이 자신의 의결권을 즉석에서 다른 회원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접수처(의장)에 직접 알리거나 총회장에서의 발언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정확하다.

정관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부의 고유사무인 회원 확인/접수 과정에서 확인하고 인정하면 될 것이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위임장을 작성하거나 접수대장에 본인이 서명/날인 등을 해서 다른 회원에게 위임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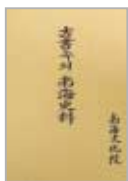
(※ 다음호에는 표결의 종류와 진행,개표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문화

- 발 행 : 전국문화원연합회
우편번호 : 121-715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
성우빌딩 1202호
홈페이지 : www.kccf.or.kr
전 화 : (02)704-2311~3
팩 스 : (02)704-2377
- 등 록 : 라36627(1984.7.12)
- 발행·편집인 : 권용태
- 편집주간 : 채강희
- 기획팀장 : 강민철
- 편집&디자인 : 컬처플러스
우편번호 : 100-013
주 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24-3
제복빌딩 303호
홈페이지 : www.cultureplus.com
전 화 : (02)2264-9028
팩 스 : (02)2264-9021
- 인 쇄 : 한국컴퓨터인쇄정보
주 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48-73
전 화 : (02)2275-8106
팩 스 : (02)2275-8107
정 가 : 3000원

신간안내

古書 속의 南海史料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향토사료들이 순 한문으로 기록되어 시대적 변천에 따라 이해가 어려우므로 원문과 해석문을 1권으로 만들어 40만 내외 군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애항심 고취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향토사료집을 발간해오고 있다. 654페이지(남해문화원)

영덕사료집



이미 2002년에 '영덕사료집'이 발간됐으나 한문으로 되어 있어 독해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발간한 영덕사료집은 삼국시대부터 1800년대까지의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 '지리지' 및 '읍지' 가운데 영덕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료를 발췌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주(譯註)했다. 754페이지(영덕문화원)

鐵原金石文大觀



철원은 공예가 1000년전 도읍을 정하고 태봉국을 세웠던 왕도로서의 궁지와 풍요를 간직한 유서 깊은 땅이다. 철원에 산재해 있는 각종 유물인 묘석, 신도비, 송덕비, 암각화, 각석등에 대한 2년에 걸친 사려 깊은 연구와 노력끝에 발간했다. 422페이지(철원문화원)

‘우리문화’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고는 우편이나 팩스, E-Mail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자 사진도 첨부해 주시면 편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주십시오)
발행처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 성우빌딩 1202호 전국문화원연합회
편집실 :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24-3 제복빌딩 3층 컬처플러스
전 화 : (02)2264-9028
팩 스 : (02)2264-9021
E-mail : cultureplus@hanmail.net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합니다.